July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7 vol.283

Cover Story

기획공연 'The Well 오페라 스토리'

반갑습니다 '오페라 스토리'로 부산관객과 만나는 연극인 유인촌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바다, 하늘, 바람 그리고 사람들 – 청(靑)사랑채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

2015. 7. 17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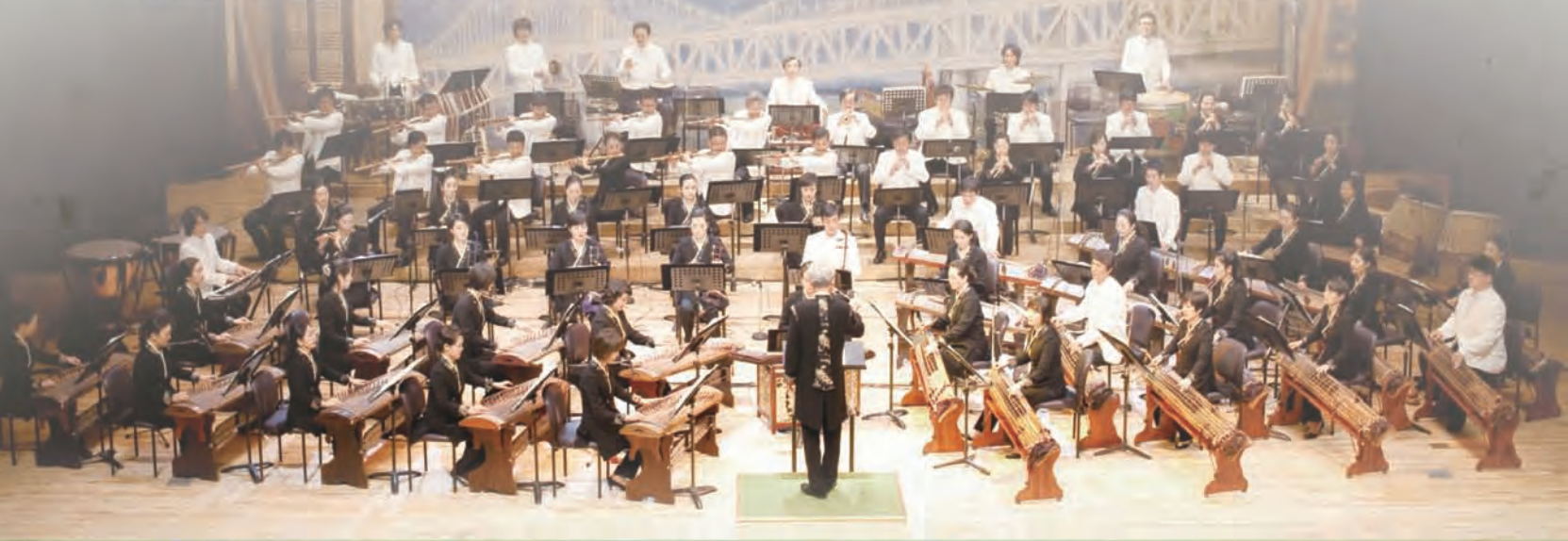
P / R / O / G / R / A / M

-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 작곡_ 박범훈
- 해금협주곡 [혼불 5시김] | 작곡_ 임준희 – 부산초연
- 소프라노와 국악관현악 | 편곡_ 백규진
  - 명성황후 OST [나 가거든]
  -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 국악관현악 [광야] | 작곡_ 계성원
- 국악관현악 [꿈의 전설] | 작곡_ 임상규 – 부산초연

정 낙 복 | 객원지휘

이 미 성 | 소프라노

방 병 원 | 해금



주 최 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주 관 _ 부산시립예술단 | 예 매 _ http://culture.busan.go.kr | 입 장 료 _ R석 10,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_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5, 공연운영팀 051)607-3143

제1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Eulsukdo Opera Festival

OPERA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돈 조반니 (Don Giovanni) - W. A. Mozart
2015. 7. 02.(목)~04(토) 아지무스오페라단 (단장 손 욱)

버섯피자 (La Pizza con Funghi) - Seymour Barab
2015. 7. 17.(금)~18(토) 아미치 델 오페라단 (단장 김성진)

메리 위도우 (Merry Widow) - Franz Lehár
2015. 7. 24.(금)~25(토)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 김일택)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아지무스오페라단, 아미치 델 오페라단,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예매 | INTERPARK 1544-1555 www.ticketpark.com
문의 | 051)220-5812 입장료 | 1만원, 2만원, 3만원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본 공연은 2015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제3회 BNK 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BNK금융그룹이 주최하고 국내외 유명교수진의 재능기부와 참가비 전액 무료로 진행된
음악캠프를 마치고 5박6일간 갈고 닦은 기량과 조화로운 하모니로 수료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젊은 음악인의 꿈과 열정을 담은 무대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일(토) / 오후 4시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 휘 / 오충근(예술총감독), 이정생(관악), 다니엘S김(현악)
협 연 / 양경아(바이올린. 동아대학교 교수), Rictor Noren(비올라. 보스턴 콘서바토리 교수)
연 주 / BMCO (BNK음악캠프오케스트라)
티 켓 / 입장권은 7월 10일부터 BNK부산은행조은극장 홈페이지 무료배부

연주곡목 / 말러 / 교향곡 제5번 C#단조, 제4악장
/ 알프레드 리드 / 엘 카미노 리얼
/ 모차르트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장조, 작품364 제1악장
/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36

문의 BNK금융그룹 : 051) 661-4821

예술총감독 오충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교 수 진

관악지도교수 이정생
서울대학교, 미국 맨하탄 음대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바이올린 김영목
경희대학교, 버인시립음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 졸업
경희대 음대 학장 역임
현재 경희대 평화의전당 관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바이올린 백재진
서울대학교, 버인국립음대 졸업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바이올린 이재민
서울대학교, 독일프라이부르크 음대 졸업
한국일보 · 중앙일보 콩쿠르 1위,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바이올린 양고운
서울대 재학중 도미,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맨해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부천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양경아
미국 맨하탄 음대 및 대학원, 메릴랜드 대학교박사 졸업
2010 부산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라 최승웅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한세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아무지체불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비올라 릭터 노렌(Rictor Noren)
북미, 유럽, 일본 등 각국 리사이틀 개최
일본 싯포코, 터키 이스탄불 등 세미나 초청강연
현재 보스턴 콘서바토리 교수

첼로 송희송
서울대학교, 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상 수상 및 정부장학생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첼로 이일세
버인국립음대 예술 최고학위 졸업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국제음악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베이스 김창호
서울대학교, 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외래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베이스 박희철
부산대학교,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 아카데미 졸업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트 김영미
서울대학교, 프랑스 에콜노르말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

플루트 최정윤
함부르크 국립음대 졸업
하노버, 킬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현재 독일브레머하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오보에 이승희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인하대학교 외래교수

오보에 임수미
독일 칼스루에 국립 음대, 프랑크푸르트 국립 음대 졸업
옥관음악 · 부산음악콩쿨 1등
현재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TMF앙상블 멤버

클라리넷 김현곤
서울대학교, 맨헨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체리티체임버싱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

클라리넷 손기영
경성대학교 졸업
부산음악상 수상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바순 곽정선
서울대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선화예고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금호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론드헤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호른 이석준
서울대학교 졸업
KBS-FM 한국의 음악가 음반 발매,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호른 준지 다케무라 (Takemura Junji)
일본 쿠니타치 음악대학 졸업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아이치대학 교수 역임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그네신 대학,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모스크바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럼펫 성재창
서울대학교, 독일 뮌헨 음대 졸업
제4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독일 레겐스부룩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

트롬본 김운성
독일 밸른, 만하임 국립음대 졸업
서울 트롬본쿼르텟 리더, 서울 심포닉밴드 지휘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베이스 트롬본 김유석
미국 맨하탄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튜바 허재영
독일 밸른국립음대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타악기 박광서
오스트리아 비인 국립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국제타악기페스티벌 음악감독

타악기 김정우
동아대학교, 독일 로스톡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현재 동아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하프 박라나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학사, 석사, 박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지휘자 다니엘S김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 졸업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Contents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

06 **커버스토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The Well '오페라 스토리'

08 **7월 공연 캘린더**

10 **반갑습니다**
더 웰의 '오페라 스토리'로 부산 찾는 연극인 유인촌

1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국제공동제작의 새로운 형태 타니노 쿠로 작 · 연출
물 우리 _이홍이

16 **불멸의 거장**_박목월⑤
죽음과 삶의 허무를 만나는 후기 詩_장윤익

1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바다, 하늘, 바람 그리고 사람들
– 청(靑)사랑채 문화 예술 창작공방_강기표

22 **그곳에 가면**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

24 **우리는 문화가족**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

26 **테마가 있는 여행**

Boards Inside+

29 **프리뷰**

34 **리 뷰**

36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5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2 **새로 나온 책**

53 **새로 나온 음반**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58 **부산문화회관路**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5년 7월호 통권 283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6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The Well '오페라 스토리'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 예술감독 강혜경
- 스토리텔러 유인촌
- 출연 소프라노 이명희, 정희경, 인구슬
  메조소프라노 유현주, 정유진, 최종현
  테너 김주완, 김동원, 구자헌
  바리톤 임희성, 김준동
  피아노 노성희

거장들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엮어 만든 또 한편의 특별한 무대가 부산관객들을 찾아온다.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지는 오페라연구회 '더 웰(The Well)'의 스토리가 있는 오페라 콘서트 '오페라 스토리'는 기존의 오페라 갈라콘서트와는 다른 새로운 연출과 스토리가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전해준다.

지난 2012년 1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성악가들로 결성된 오페라연구회 '더 웰'은 어려운 공연 환경 속에서도 감동이 있는 신선한 무대들을 제작해왔다. 특히 2013년 선보인 연극과 무용, 오페라가 만난 새로운 장르의 무대인 '괴테와 구노의 만남-파우스트'는 '더 웰'만의 색깔있는 무대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더 웰'은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오페라연구회 '더 웰(The Well)' 대표이자 음악감독인 성악가 강혜경이 예술감독을 맡고 극단 여행자 연출가인 유대식이 연출한 '오페라 스토리'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오페라보다 더 오페라스러운 무대로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오페라 스토리'는 주인공 '카르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로부터 한편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어둠이 내려앉은 무대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러가 무대 위 주인공들을 발견하면서 마치 숨겨져 있던 이야기 상자가 열리듯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극 중 카르멘과 투우사,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이 펼치는 흥겨운 파티 속에 사랑과 질투, 설렘, 우정이 오페라 아리아로 되살아난다. 극 중 등장하는 오페라 아리아만 해도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비롯해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슈트라우스 오페레타 '박쥐', 번스타인 오페라 '캔디드', 생상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도니제티 오페라 '연대의 아가씨',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다양하다. 오페라 속 주옥같은 아리아들과 중창들이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한편의 오페라 무대로 즐거움을 더해준다.

스토리텔러 **유인촌**

특히 이번 무대의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인 스토리텔러 역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연극배우 유인촌이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71년 연극 '오델로'로 데뷔, 197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브라운관 활동을 시작한 유인촌은 드라마 '전원일기'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1975년 MBC 연기대상 신인연기상을 시작으로 백상예술대상, 한국방송대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KBS 연기대상, 김수근문화상, 동아연극상, 이해랑연극상 등 연기자로서 각종 상을 휩쓴 유인촌은 지난 1995년에는 극단 '유'(현재의 '광대무변')를 창단하고 1999년 소극장 유시어터를 개관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년~2011년),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년)을 지내는 등 연극무대 바깥에서 바쁘게 활동해온 유인촌은 2013년 연극무대로 돌아오면서 복귀작으로 괴테의 희곡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를 결합한 '파우스트-괴테와 구노의 만남'을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오페라연구회 '더 웰'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괴테와 구노의 만남-파우스트'는 지난 2013년 4월, 8회 공연이 전석 매진되었고 관객들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그해 연말 앵콜공연을 가졌다.

이번 오페라 스토리에서는 스토리텔러 유인촌을 비롯해 소프라노 이명희, 정희경, 인구슬, 메조소프라노 유현주, 정유진, 최종현, 테너 김주완, 김동원, 구자헌, 바리톤 임희성, 김준동 등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 클래식의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유쾌한 무대를 펼친다.

7

2015 JULY

CULTURAL SCHEDULE

청정海의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SUNDAY	MONDAY	TUESDAY
전시실 제 21회 부산서예대전–대 · 중전시실 7월 11일(토)–7월 15일(수) *시상식 7월 15일 14:00 –국제회의장 윤종철(010–9753–0718) 제11회 부경 임원 · 이사 및 초대작가전–중전시실 7월 21일(화)–7월 23일(목) 조상래(010–8501–8181)		
5	**6**	**7**
대 제24회 부산무용제 19:00 1만원·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중 2015년 글로벌공동체 다문화가족 음악회 18:00 부산사랑여성회(010–8266–6662)	대 제24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국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JEM 콰이어' 14:00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	대 제24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2	**13**	**14**
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7:00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소 배윤진 클래식기타 독주회 18:00 초대/We Music(010–6416–5482)	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8회 무용정기공연 19:00 초대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48) 국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테너 임성규' 14:00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	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48) 국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소프라노 왕기헌' 14:00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
19	**20**	**21**
중 제18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5:00 무료/이은정(010–3936–7757)	국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소프라노 김유진' 14:00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	대 글로리콰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글로리콰이어(010–5513–0314) 중 최영미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국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베이스 김정대' 14:00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
26	**27**	**28**
		대 판댄스씨어터 정기공연 'Left Behind' (남겨진 자들) 2만원 · 1만원 김수현(010–9056–16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예술에의 초대〉는 Caffé Bene gelato & waffle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중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 연주회 19:00 무료/부산MBC(760-1126) 소 소프라노 조지원 독창회 19:30 초대/조지원(010-7665-5214)		소 토요상설무대-부산버슴새예술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8	**9**	**10**	**11**
대 제26회 이건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초청공연' 20:0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이건산업(032-760-0496)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번스타인 인 부산'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5)	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7:00 일반 1만원·초중고생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소 토요상설무대-후 브라스콰이어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15	**16**	**17**	**18**
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대 틴틴콘서트 13:00 ㈜KNN(850-9632)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3)	중 제4회 KIBI 페스티벌 '만남' 17:00 초대 씨엘뮤지컬컴퍼니(010-6205-1445) 소 토요상설무대-앙상블 에스뜨레지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2	**23**	**24**	**25**
중 제6회 웰리스병원음악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첼리스트 김욱영 초청콘서트' 20:00 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		소 Pour le Piano 19:30 초대/김여주(010-5448-3927)	중 UKYO 제11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양보람(010-3863-3087) 소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9	**30**	**31**	국제회의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2기 7월 4일 / 11일 / 18일 / 25일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산시립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7월 4일 / 11일 / 18일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4)
대 아시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노블리에 콘서트 2015 19:30 영앤잎섬(02-720-3933)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국 국제회의장

더 웰의 '오페라 스토리'로 부산 찾는 연극인 유인촌

전원일기의 듬직한 농촌청년에서부터 파우스트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을 표현해온 연극인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의전당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지낸 그이지만 정작 그는 무대에서 더 빛나는 배우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연극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한 유인촌 전 장관이 더 웰의 '오페라 스토리'로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정말 오랜만에 부산에서 공연하게 되어 많이 설렙니다. 본업인 연극 무대는 아니지만 오페라와 연극이 결합된 흥미로운 작품이라 관객들과 어떻게 만날지, 부산 청중들의 반응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 공연이 기다려집니다."

오는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 오를 더 웰의 '오페라 스토리'는 오페라와 연극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무대이다. 남녀 노소가 "클래식은 이렇게 재미있는 무대였구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시도된 '오페라 스토리'는 여러 아리아를 한편의 스토리로 엮어 만든 오페라 갈라 콘서트이다.

기존 공연이 오페라 아리아만을 부르는 반면 '오페라 스토리'는 관객들이 오페라를 이해하고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해설을 해주는 스토리텔러라는 역할이 등장, 재미있고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하는데 유인촌 전 장관이 극을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러로 '오페라 스토리' 전체 공연을 이끌어간다.

지난해 8월 유시어터 페스티벌 무대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더 웰의 '오페라 스토리'는 참신한 무대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방방곡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전국 방방곡곡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 지난 2년간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콘서트와 새로운 형식의 갈라 콘서트를 선보여온 '더 웰'은 특히 괴테와 구노의 만남 '파우스트'라는 무대를 통해 더 웰만의 색깔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파우스트'는 유인촌 전 장관의 7년만의 무대 복귀작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으로, 연극, 현대무용, 오페라가 만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다.

2012년부터 더 웰과 함께 작업해온 유인촌 전 장관은 오페라를 조금 더 쉽게 만날 수는 더 웰과의 작업을 통해 많은 청중들과 소통하며 그 자신도 힐링할 수 있었다. 더 웰과 함께 한 울진, 거창, 해남 등 지방 공연은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옛날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 공연을 다니면 관객들의 반응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 특성이 묻어났는데, 요즘은 방방곡곡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지역 관객들의 반응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중앙에 비해 지역 공연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도 제작 여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중에도 공식일정으로 부산을 자주 찾았던 유인촌 전 장관은 부산이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 공연 제작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부산에도 도시 규모, 인구 규모에 맞는 전문 공연장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을 갈 때 마다 부산 정서, 특성이 남아있는 영도지역, 항구와 창고, 부두, 해안 등을 돌아다니며 극장 부지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만났다면 벌써 부산에서도 활동했겠죠."

1971년 실험극단의 '오셀로'(세익스피어 작)에서 엑스트라인 병사 역을 맡아 처음 연극무대에 오른 유인촌 전 장관은 1974년 MBC 공채탤런트 6기로 브라운관에서 활동을 시작해 이듬해 MBC 신인연기상과 백상예술대상 남우주연상 · 남자신인연기상 · 인기상을 수상하며 스타로 떠올랐고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간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 국민배우로 주목받았다.

1995년에는 극단 유를 창단하고 1999년에는 유시어터를 개관했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난장이'를 비롯해 '갈매기'(안톱 체홉),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의 작품들이 거쳐 간 유시어터는 공연의 메카로 통하는 혜화동 대학로가 아닌, 강남의 한복판에서 공연 문화를 이끌어 왔다. 오는 7월 유시어터 개관 15주년을 맞아 유인촌 전 장관은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유시어터'(250석) 1일 대관 1만원 프로젝트를 진행, 예술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직 활동으로 잠시 떠났던 만큼 요즘은 무대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아들 남윤호와 함께 한 연극 '페리클레스'에 이어 유씨어터 15주년 페스티벌 '백중사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나는 유인촌 전 장관. 그의 쉼 없는 행보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행복해진다.

국제공동제작의 새로운 형태
타니노 쿠로 작·연출
물 우리

글 **이홍이** 번역가, 드라마터그

최근 공연계에서 '국제교류'라는 말은 매우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각종 페스티벌이 해외 공연팀을 초청하는 일도 많아졌고, 외국 연출가와 한국 배우들의 작품 또는 해외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이 섞인 작품들이 공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만큼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킹이 활발해졌고, 관객들 역시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종종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을 찾은 공연 단체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기며 밀고 나가는 경우 등 간혹 안타까운 시행착오들을 목격할 때가 있다. 체재비만 생각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이 들고, 통역을 거치는 연습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이 작품이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만들어져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일본의 극작가 겸 연출가 타니노 쿠로(タニノクロウ)의 신작은 연극의 국제교류 작업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다.

타니노 쿠로는 1976년생으로 '정원극단 페니노(庭劇団ペニノ)'의 대표이자 정신과 의사 출신이며, 특유의 초현실주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아왔다. 몇 년 사이 그의 활동 무대가 유럽과 미국으로 넓어졌고, 올해 3월 26일 독일의 크레펠트&묀헨글라트바흐(Theatre Frefeld und Mönchengladbach)에서 그의 작품 〈물 우리(水の檻)〉가 초연되었다. 이후, 이 작품은 4월 1일~2일, 4일, 30일, 5월 1일~2일에 공연되었고, 크레펠트&묀헨글라트바흐 극장의 정식 레퍼토리로 2016년까지 더 공연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합작품이 탄생된 배경에는 우선 극장의 기획이 있었다. 각각 22만 명과 26만 명 정도의 인구수를 보유한 작은 도시 크레펠트와 묀헨글라트바흐는 서로 함께 오페라, 발레,

연극작품의 공연을 올리는 공립극장을 가지고 있다. 이 극장에는 오페라단과 발레단, 극단이 있어 각 파트의 스태프들은 물론 연기자들이 약 2천 명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공립극장은 최근에 '유럽의 밖과 만나다'라는 기획으로 매년 유럽 이외 국가에서 극작가나 연출가를 초청하고 있는데, 올해의 주인공이 바로 타니노 쿠로가 된 것이다. 사실 처음 독일 측에서 작품의뢰가 왔을 때, 타니노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제공동제작 작품 중 좋은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극장 측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했고, 결국 직접 극장을 찾은 타니노는 작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스스로 '극단 작업이 아니면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타니노 쿠로는 통역 스태프와 함께 독일에서 체재를 하며, 극장의 스태프들과 함께 〈물 우리〉를 만들었다. 출연자는 크리스토퍼 빈트겐스(Christopher Wintgens) 단 한 명이다. 계획 자체는 약 1년 전부터 진행되었지만 연습기간은 약 8주 정도로, 독일의 연극이 일반적으로 6주~8주 연습기간을 거친다고 하니, 1인극의 연습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연극의 국제교류 작업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일본의 극작가 겸 연출가 타니노 쿠로(タニノクロウ)의 ' 물 우리'. ©010_Käfig_HP1

연극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일본의 오래된 아파트. '코다마 린타로'라고 하는 75세 일본인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이미 은퇴한 독문과 교수로, 3 · 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거짓을 일삼는 은폐국가 일본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매일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그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독일어를 사용한다. 그의 아내는 독일 유학 시절에 만난 독일여성으로 지금은 이불 속에 누워만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원전 사고 때문에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겼고, 정부는 그것을 은폐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정보를 발신하며 사이사이 아내와의 추억,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읽어 내려간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초반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이 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는 1미터 50센티밖에 안 됩니다. 저도 1미터 47센티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이상하게 키가 자라 지금은 180센티가 넘습니다. 저는 지금 75세로, 성장기는 진작 지났습니다." 이 정도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정도지만, 아내는 자신과 다르게 발만 거대해졌다는 이야기, 중국 정부까지 합세하여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가스까지 끊어버렸다는 이야기 등 점점 그의 말이 기괴하게 들린

©079_Käfig_HP1

연출가 타니노 쿠로는 근대 일본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의사였던 모리 오가이의 소설 '망상'과 '무희' 일부를 인용 혹은 참조하며 일본인의 은근한 열등감과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을 함께 뒤섞어 놓았다. ©018_Käfig_HP1

다. 급기야 그는 이불 속에 있던 나무통을 들고 왈츠를 춘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메시지 속에 '유리아'라는 독일 여성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섞여 들어온다. 전화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집을 찾은 유리아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헤르만'을 부른다.

관객은 이 연극이 끝날 때 즈음이 되어서야 코다마 린타로가 사실은 40대의 독일 남자이고, 한때는 일본문학을 연구했던 망상성 인격장애 환자 '헤르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2011년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사고 소식을 접하고, 일본에 대한 망상이 커진 것이다. 타니노는 근대 일본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의사였던 모리 오가이의 소설 '망상'과 '무희' 일부를 인용 혹은 참조하며, 당시 모리 오가이가 독일 유학을 했던 점을 착안해, 일본인의 은근한 열등감과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을 함께 뒤섞어 놓았다. 이러한 의도는 주인공 린타로=헤르만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오페라 〈나비부인〉의 '어느 맑게 갠 날(Un bel di, vedremo)'이 흘러나오도록 한 데에서 명확하게 전달된다.

일본의 작가가 쓰고 독일의 배우가 연기한 이 작품은, 틀림없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성과물이다. 지난 6월 5일, 일본에서 이 국제공동제작 작품 〈물 우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었을 만큼, 이와 같은 제작 케이스는 일본의 공연관계자 및 관객들에게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만남이 만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물 우리〉의 앞으로의 행보 역시 응원하고 싶다.

죽음과 삶의 허무를 만나는 후기 詩

글 **장윤익** 동리목월문학관장 · 문학평론가

박목월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생활과 가정을 소재로 한 중기 시와는 상당히 다른 시 세계를 전개한다. 그는 죽음과 이별, 신(神)의 문제를 시의 중심 요소로 인식하는 시의 변모를 시도하여 한국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후기시집

이들 시는 〈경상도의 가랑잎〉(1968), 〈무순(無順)〉(1976)과 유고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1979)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베요 아베요 / 내 눈이 티눈인 걸 / 아베도 알지러요 /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 축문이 당한기요 / 눌러 눌러 / 소금에 밥이나마 / 많이 묵고 가이소 / 윤사월 보리고개 / 아베도 알지러요 / 간고등어 한손이믄 /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 저승길 배고플라요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만술아비의 축문' 전반부〉

밤 늦은 靑坡洞 / 마지막 合乘을 타고 가면 / 淑大入口 가까운 / 어느 막다른 골목은 비어 있었다 / 그 골목은 / 姜小泉의 가랑잎처럼 바튼 / 음성이 깔렸는데 / 小泉은 어디로 갔느냐 /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 子正 가까운 밤 / 마지막 합승을 타고 가면 / 빈 골목은 두렵다 / 발목이 잠긴 가로등이 있어 / 빈 골목은 / 더욱 두렵다
〈'청파동 (靑坡洞') 전문〉

죽음, 삶의 허무와 만나는 후기의 시는 자칫 감상(感傷)에 빠지거나 철학적 관념에 빠져버릴 수 있다. 위에 인용된 '만술아비의 축문'이나 '청파동'은 감상이나 사변적인 관념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다룬 시로 보인다.

독자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만술아비의 축문'의 시적 배경은 궁벽한 산촌이고, 화자(話者)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하고 가난한 인물이다. 이 시는 간고등어 한 손 놓지 못하여 소금에 밥을 놓고, 축문도 없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화자의 참담한 삶이 끝없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죽음과 지금의 삶을 연계한 이 시는 최대의 압축에서 최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박목월 시의 매력을 전달해 준다.

'청파동'은 "그 골목은 / 姜小泉의 가랑잎처럼 바튼 / 음성이 깔렸는데 / 小泉은 어디로 갔느냐 /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의 시를 통해 삶의 허무와 빈 골목을 두렵게 느끼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제시한다.

이남호 문학평론가는 박목월의 후기 시를 "마지막 시집인 〈무순〉에는 인생에 대한 주목할 만한 철학적 관조가 담겨 있다. 아울러 삶의 덧없음과 죽음에 대해 보다 빈번하게 생각하고 신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변적인 내용들을 평이한 독백체 어조로 노래하다 보니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

복원된 박목월 생가

박물관 내 서재

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깊은 내면성으로 삶의 허무와 신의 섭리를 노래한, 기억할만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박목월은 마지막까지 시와 삶을 정직하게 응시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남긴 시인"으로 평가한다.

타오르는 성냥 한 까치의 / 마른 불길 / 모든 것은 / 잠깐이었다 /사람을 사모한 것도 / 새벽에 일어나 목놓아 운 것도 / 慶州에서 출발하여 / 서울에 머문 것도 / 타오르는 한 까치의 성냥불/ 다만 모든 성냥까치가 / 다 불을 무는 것이 아니다 / 태반은 發火도 못하고 / 픽픽 꺼져가는 성냥개비 / 그리고 빈 성냥곽을 멀리 던져 버린다
〈'잠깐' 전문〉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 이승 아니믄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서 // 뭐락카노, 뭐락카노 / 썩어서 동아밧줄은 삭아내리는데 //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뭐락카노 뭐락카노 뭐락카노 / 니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고…… // 오냐. 오냐. 오냐. /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 오냐. 오냐. 오냐.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이별가' 전문〉

'잠깐'은 성냥개비 한 까치를 통해 인간의 운명과 사라지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의 허무를 형상화한 시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지만 '잠깐'이라는 순간에서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별가'는 '뭐락카노'를 경상도 사투리를 이승과 저승의 문제를 처절하게 다룬 감동적인 시로 평가되고 있다. 박목월의 후기 시는 이러한 죽음과 이별, 삶의 허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만년에 와서는 기독교 신(神)을 소재로 한 시 창작에 관심을 쏟았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 내게로 뻗쳐온다. / 다섯 손가락을 / 활짝 펴고 / 그 득한 바다가 / 내게로 밀려온다 / 인생의 종말이 /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 나는 미처 몰랐다 / 허무의 저편에서 / 살아나는 팔 / 치렁치렁한 / 星座가 빛난다
〈'크고 부드러운 손' 전반부〉

그의 신앙의 깊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은 "허무의 저편에서, 살아나는 말, 치렁치렁한, 성좌가 열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기독교 시로서도 그의 문학적 성과가 인정을 받고 있다.

바다, 하늘, 바람 그리고 사람들
– 청(靑)사랑채, 문화 예술 창작공방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❶ 청사랑채-전경_ⓒ윤준환
❷ 청사랑채-지하층의 도자기 공방과 선큰 마당 _ⓒ강기표
❸ 청사랑채-바람과 하늘과 하늘을 품은 외부계단_ⓒ윤준환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포구, 청사포

청사포는 달맞이길 아래의 작은 어촌마을이다. 달맞이길의 거대한 아파트군과 밀집한 카페들을 뒤로하고, 숨은 듯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다. 앞으로 바다 포구와 동해 아침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고, 바다 내음을 한가득 품은 바람이 불어오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해녀가 물질을 하는 소박한 삶과 어촌의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다. 해운대와 송정 사이에는 세 개의 작은 포구가 해안을 따라 나란히 놓여있다. 구덕포, 미포와 더불어 청사포가 바로 그 작은 포구이다. 청사포의 원래 이름은 '푸른뱀'이란 뜻의 청사(靑巳)였다. 이름에 얽힌 전설은 예전에 이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자, 그 아내는 바닷가 바위에 올라 매일 같이 남편을 기다렸다. 이를 애처롭게 여긴 용왕이 푸른뱀을 보내 부인을 동해 용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했다는 애틋한 이야기이다. 후에 마을 지명에 뱀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푸른 모래의 포구', 즉 '청사(靑沙浦)'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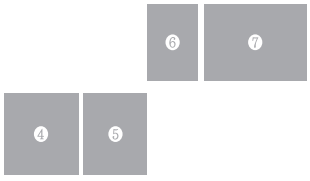
'청(靑)사랑채'는 205㎡(약 60평) 남짓의 대지면적을 가지며, 대지의 세로 방향으로 2m가량의 높이차이가 있다. 건축가는 대지의 높이차이를 적절히 이용하며 지하의 선큰마당[1]과 길의 연장선상에 있는 외부 계단을 통하여 대지 높낮이를 극복하고, 계단을 통하여 대지 앞과 뒤를 시각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설계자인 이원영 건축가[2]는 "미관지구[3] 건축선 이격, 일조권[4],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면서 마을의 화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하며, 문화 예술 창작공방을 만드는 것이 디자인의 주요한 과제였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바닷가 마을이 관광지가 되면서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버리는 현실에서 작은 건물이나마 마을의 전체 이미지를 지켜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건물의 형태, 색상, 재료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며 '청사랑채'의 건축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항상 열려져 있는 공간

'청사포 사람 니랑 내랑이 함께하는 정이 오가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靑 · 사랑채'는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에 도자기 공방이, 1층은 주민, 작가, 방문객의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2층과 3층은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공간은 숙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적 창작활동이 가능하여 청사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젊은이의 창작활동의 나래를 한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공간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주민, 작가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누구나,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항상 열려져 있는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연속된 공간

열림은 도시의 동선(도로)과 건물의 동선 즉 외부계단을 통해 확장되고, 계단은 도로의 길(골목길)과 건물의 길로 연속되고 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며 쉼터도 만나고, 건물도 만나듯 계단(길)을 오르내리며 지하의 선큰마당을, 나무 아래 쉼터를, 1층 안길 사이마당을, 계단의 전망데크를 만나기도 하며, 옥상마당으로 오른다. 또한 각층의 공간과 연결되고 있어 마치 골목길을 걷는 듯하다. 계단을 오르며 마주하는 사이 공간과 지붕으로 뚫린 사이공간은 하늘을 보여주기도, 텃밭을 보여주기도, 오래된 나무를 보여주기도, 바다를 보여주기도 하고, 와우산과 등잔산의 푸르름을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훌륭한 액자가 된다. 계단과 외부공간을 흐르는 바람은 자연과 소통하며 바다의 향기를 가져다준다.



❹ 청사랑채-뒤의 텃밭과 청사랑채_ⓒ강기표
❺ 청사랑채-야경_ⓒ윤준환
❻ 청사랑채-1층의 사이공간데크와 나무_ⓒ윤준환
❼ 청사랑채-3층 창작공방과 옥외데크_ⓒ윤준환

청사포는 차태현과 송혜교 주연의 '파랑주의보'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영화 속 차태현(수호)이 마음도 얼굴도 제일 예쁜 송혜교(수은)를 짝사랑하듯, 거대한 도시 부산이 청사포의 순박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짝사랑만 했으면 한다. 개발이라는 왜곡된 사랑을 보내지 말길 바라는 나의 마음은 너무 순진한 걸까?

1) **선큰가든 (sunken garden)**
지하 공간에 꾸민 정원이나 마당으로 대개의 경우 지붕이 없고 하늘로 열려 있어 지하 공간의 채광이나 환기에도 도움을 준다.

2) **이원영**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주)메종건축사사무소 대표이며, 동명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중이다. 2015년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2009), 서부산톨게이트 특성화조성사업(2012), 청사포마을회관(2013), 원도심 임시수도 상징거리조성사업(2013)에 당선되었으며, 찾아가는 거리 갤러리-거리의 쉼표, Comma..,(2009 국제공공디자인 BEST상), 소통의 굴다리(2010 대한민국공간문화 우수상), 온천동 경관협정 쉼터마당, 감천동 방가방가프로젝트, 광안리 소라화장실, 부산미디어아트벙커 기본계획, THE BOX(2013 부산다운 건축상 동상), 닥밭골 행복문화나눔터 등 다양한 공공 및 일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3) 미관지구는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용도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도로 등)에서 이격거리 등을 규제하고 있다.

4)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창작인큐베이터를 꿈꾼다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

"까도 까도 새로운 매력이 넘치는 양파는 사계절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식재료이죠. 어니언 킹은 언제나 새로움이 넘치는 무대, 그 속에서도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삶에 뿌리를 둔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난 1월 30일 개소식을 가진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산 연극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은 공간소극장 대표로 있는 연극인 전상배, 황미애씨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창작극의 부활을 위해 '새로운 창작인큐베이터'를 꿈꾸며 마련한 뜻깊은 공간이다.

'어니언 킹'이라는 공간 명칭은 대만교류공연을 통해 친분을 쌓았던 대만 일러스트 작가 황송화(黃頌華)의 작품 캐릭터인 '어니언 킹'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위축되어 있는 부산연극계에 양파 같은 매력을 선사하겠다는 전상배 대표는 '어니언 킹' 개소와 함께 기존 운영해오던 극단 공간아트컴퍼니를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으로 바꾸고 극단 대표, 기획자에서

극작가, 연출가로 변모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간소극장에서 10분 거리, 지하철 2호선 남천역에서도 멀지 않은 남천동 주택가에 자리한 '어니언 킹'은 입구부터 남다른 감성이 돋보인다. 지난 1월 개소식을 앞두고 일러스터 황송화 씨가 그의 캐릭터 '어니언 킹' 사용을 흔쾌히 허락하면서 '어니언 킹' 입구는 친근하면서도 유쾌한 '어니언킹' 캐릭터가 방문객들을 맞는다.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 전신인 공간아트컴퍼니, 더 거슬러 올라가 극단 사계 시절에도 공간소극장은 창작극의 산실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어니언 킹은 일년에 한 두편 작품을 올리기도 어려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매년 수편의 창작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공간소극장 가족들의 창작 열정이 곳곳에 스며 있다. 2012년부터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2015년 무대로 지난해 5월 연출가 중차오(鍾喬)의 대만 差事劇團과 함께하는 해외교류공연으로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新천국주점'을 7월 23일 전상배 대표의 연출로 새롭게 선보인다. 7월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에는 연출가, 연기자가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하다. 앞서 5월부터 한달간 공간소극장 무대에 올랐던 연극 '도둑과 연인' 연습도 이 곳에서 펼쳐졌다. 극단의 연습이 없는 날에는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소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5월 부산항 축제 참가자들이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읽고 쓰고 보고 느끼고 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으로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황미애 씨는 '어니언 킹'을 다양한 예술장르가 서로 어우러지는 매개공간으로도 꾸려나가고 싶다. 사회다큐 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의 정기모임이 두 차례 이곳 '어니언 킹'에서 열렸고, 지난 2월에는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인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의 초청강의가 열리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어니언 킹'은 시민연극교실, 시민희곡교실을 여는 한편, 서포터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문화로 소통하고 있다.

■ **공연예술창작소 어니언 킹** _ 611-8518,www.facebook.com/#!/gonggan
cafe.naver.com/smalltheatre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

6월 푸르른 신록으로 가득한 대학 교정 사이로 울러퍼지는 국악 선율을 따라 도착한 부산대학교 예술관. 둘째주 토요일인 6월 13일은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 정기모임이 있는 날로 오전부터 단원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다.

지난 5월 7일 제2기 발대식을 가지며 힘찬 출발을 알렸던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는 부산대학교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국악오케스트라이다. 특히 그 대상을 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하면서 '국악'을 통해 그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부산대학교가 지난해 6월 교육부의 '글로벌 브릿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첫 걸음을 내딛은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배양현 교수를 단장으로 한국음악학과 교수와 강사, 재학생 등 60명이 재능을 기부하는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브릿지 사업'이란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다문화 학생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당시 국악 분야에서는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가 처음 선정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에서 '효원'은 금정산 기슭에 있는 부산대학교를, '레인보우'는 다양한 색(다문화)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무지개를 의미한다.

지난해 1기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자 자녀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알제리, 멕시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다문화 가족 초 · 중학생 26명이 참가해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 정가(正歌), 병창, 아쟁 등 악기별로 국악이론 및 실기지도 수업을 받았다. 지난해 1기생들과 더불어 새로운 참가자까지 모두 38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2기생들은 내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멘토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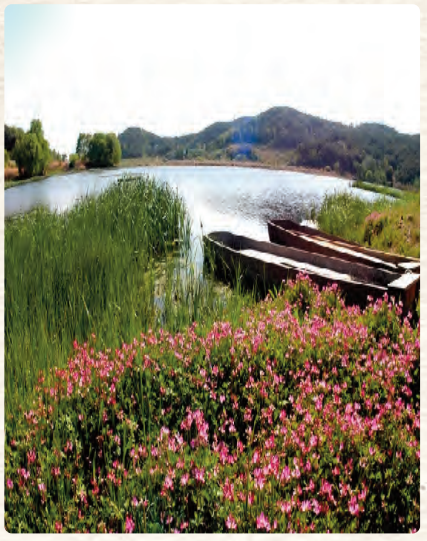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는 매월 두차례 토요일 부산대학교 예술관에서 연습을 겸한 모임을 갖는다. 참가자 모두가 국악기는 처음 잡는 초보자들이지만 멘토들과 함께 우리음악을 즐겁게 배우고 있다. 파트별 연습 전에는 멘토와 미리 만나 부족한 실력을 보충하곤 한다. 두차례 열리는 심화학습에서는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강사로 있는 오진호 씨를 비롯해 김은별, 권은화, 이중희, 진형준, 박미경, 강시내 씨 등 전문강사 7명이 참여해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년에 두차례 있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전수캠프를 통해 집중훈련을 받으며, 1년의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에는 그동안 쌓은 기량을 확인하는 연주회를 멘토들과 함께 갖는다. 지난해 6월 5일 부산대학교 효원홀에서 열린 제1회 연주회에서는 서툴지만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기 참가자 중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한 단원은 그 실력을 인증받아 지금은 부산대학교 영재원에서 가야금병창 수업을 듣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오수진은 든든한 맏언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수진이는 혹시나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단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계속 악기를 놓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점수를 얻으면서 계속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진이가 연주하는 악기는 애절한 선율이 인상적인 '해금'. 드라마를 통해 언젠가는 한번 꼭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라 고민없이 해금을 선택했다는 그는 해금이 두 줄로 선율을 빚어내는 예민한 악기라 배우기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지난해 처음 악기를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의아했다는 수진이는 정기연주회에서 무사히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 내려왔을 때 마치 전문연주자라도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 늦게 시작해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수진이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에게 악기배우기를 권하고 있다며 활짝 웃는다.

멘토로 참가하고 있는 김은별 씨는 가야금 연주자다. 처음 참가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대상이 다문화 가정, 탈북자 아이들이라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도 했다는 그는 아이들과의 첫만남에서 편견임을 깨달았다. 실력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고 싶다는 김은별 씨는 그래서 '효원 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가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코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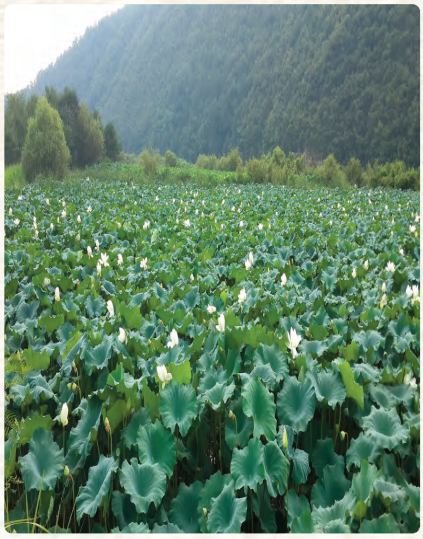

우포늪

7월 10일(금)

창녕 자연의 보고 우포늪 자연생태교육

1억 4천 만 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창녕 우포늪 생태 기행.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 국보 33호 신라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 · 온천 · 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문화 도시 창녕의 아름다운 자태를 느껴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창녕 도착, 우포늪 생태탐방(수생식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기, 모둠별 미션으로 풀어보는 나무이야기, 뻘배 타면서 늪에서 신나게 놀기)
- 12:30 중식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5:00 비화가야의 역사가 깃든 창녕박물관, 석빙고, 진흥왕 순수비 등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회야댐 연꽃

8월 14일(금)

울주군 회야댐 생태습지 생태습지탐방

약 5만㎡의 연꽃과 12만 3,000㎡ 부들, 갈대 등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도심 속 생태습지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
1년에 한달간 개방되는 울산의 DMZ 울주군 회야댐의 생태습지 탐방과 아름다운 연꽃, 울산의 상징 고래박물관 나들이로 특별한 여름을 즐긴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00 회야댐 도착, 습지탐방
- 11:30 생태음악회
- 12:30 중식
- 14:00 고래박물관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7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은경(남구 유엔로)
권순유(사하구 사하로)
박모건(수영구 수영성로)
설경진(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이기원(서구 구덕로)
전소민(연제구 거제천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최서영(연제구 거제대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한선경(동래구 안남로)

기존 회원

곽기만(영도구 일상봉로)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노현식(수영구 호암로)
문정임(남구 황령대로)
박원석(남구 유엔로)
이석주(해운대구 청사포로)
정남순(연제구 거제대로)
조은미(사상구 새벽로)
최지은(금정구 부곡온천천로)
허민지(남구 용소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환경과 문화가 함께 하는 에코투어 2

지난해 8월 정기회원 테마여행 100회를 맞아 기획된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15년 7월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에코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0)

9월 11일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탐방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자연생태 체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사천 갯벌탐방(비토섬 갯벌과 다맥어촌체험마을 체험, 사천갯벌 탐방로 둘러보기, 폐철로를 활용한 다래와인갤러리 방문, 비토섬 음악회)

11월 13일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7개의 다리,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해인사에서 홍류동계곡까지 이어진 10여 개의 체험 코스로 유명한 해인사의 문화생태탐방 명소 소리길을 국립공원 생태 해설사와 탐방(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 탐방, 무용단 우리춤 체조)

10월 2일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슬로우시티 악양을 방문,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섬진강변 걷기로 힐링을 경험(생태해설사와 함께 지리산의 야생화 · 곤충, 지리산의 습지동물, 우주의 생명과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 진행, 섬진강변 음악회)

12월 12일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천연기념물 16여종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10여종 등 93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감동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주남저수지의 대표공간인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 탐방, 주남저수지 생태교육, 목공예 체험, 철새와 함께하는 겨울 음악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 전화,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0)

CULTURE LIFE

29_ 프리뷰
34_ 리뷰
36_ 프로그램 가이드
52_ 새로 나온 책
53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번스타인 인 부산(Bernstein in Busan)

7.10(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리 신차오**

피아니스트 **슈에 팅저**

미국이 배출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자 카라얀과 함께 20세기 중후반을 양분한 위대한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을 조명해보는 특별한 무대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로 마련된다.

'번스타인 인 부산(Bernstein in Busan)'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탁월한 감수성으로 대중친화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발표했던 작곡가 번스타인의 대표작들을 통해 그의 음악세계를 만나본다.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철저한 작품해석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슈에 팅저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과 디베르티멘토,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그리고 번스타인이 즐겨 연주했던 거슈윈의 '피아노협주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번스타인의 대표적인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 18세기 프랑스 문인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 혹은 낙천주의(캉디드는 프랑스식 발음)'를 각색한 '캔디드'는 캔디드라는 순진하고 단순한 청년의 모험담에 당시 미국 사회에 불었던 반공산주의 열풍을 풍자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캔디드' 서곡에 이어서는 재즈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인 미국의 작곡가 거슈인의 '피아노협주곡'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완성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를 들려준다.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2013년 4월 제489회 정기연주회에서 차이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협연을 맡아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슈에 샤오츄슈가 슈에 팅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산관객과 만난다.

25세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한 슈에 팅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2006년 세르비아에서 열린 제3회 이사도르 바직 국제피아노콩쿠르 청소년 부문 1위, 제11회 미국 미주리 서던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등 콩쿠르 수상과 함께 세계 여러나라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지면서 국제적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0년 중국 유니버셜 뮤직과 계약을 체결한 슈에 팅저는 유니버셜 뮤직 소속 가장 어린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그해 발매된 첫 앨범 'The Magic Finger'는 중국 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Platinum record'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1년 발매한 첫번째 네오-클래식 앨범 'Silent Music'은 작곡에서 편곡 그리고 연주까지 전 과정을 슈에 팅저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서 피아니스트로서뿐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마지막 곡은 이미 영화와 뮤지컬로도 잘 알려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불리는 기본 스토리의 주요 장면을 9곡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심포닉 댄스'는 맘보, 차차차, 재즈 등 미국 색채를 가득 품고 있는 작품으로 일반 클래식 공연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타악기들의 향연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해준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3145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7.11(토)-**15**(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천재화가 이중섭의 예술세계와 그의 부인 마사코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이 음악극으로 새롭게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해 12월 부산시립극단 2014년 마지막 작품으로 선보였던 '길 떠나는 가족-화가 이중섭'은 한국 연극계의 산 증인인 김의경 선생의 동명 희곡을 재일교포 2세 연출가인 김수진이 새로운 시선과 구성으로 탄생시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이번에 음악극으로 새롭게 탄생된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은 독창적인 화법으로 한국미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이중섭의 순수한 예술혼과 아내 마사코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슴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재탄생시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마사코와의 사랑이 시작된 동경 유학생활을 시작으로 전쟁통 속에 일본을 떠나 이중섭을 찾아 원산행을 택한 마사코와의 결혼생활, 어머니와 가족들을 북에 두고 부산과 제주도를 떠돌았던 피난시절과 결국 가난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그림을 손에 놓지 못했던 화가 이중섭의 예술적 집념이 보는 이에게 더욱 감동으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중섭의 그림 속 '소'들이 오브제로 재탄생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관객과 만나고 극 중 아름답고 애잔한 선율은 또다른 상상속의 그림으로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연출가 김수진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당시 일본 연극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가라주게의 문하생으로 연극계에 입문한 후 수많은 작품활동을 펼치다 지난 1997년 '신주쿠 양산박'을 창단한 일본 연극계의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해 한·일관계 개선과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해 부산시립극단과의 작품에 흔쾌히 참여했던 김수진은 동일 작품을 일본 도쿄에서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이중섭과 이중섭 어머니, 마사코 역할을 맡았던 부산시립극단 이혁우, 이현주, 김은희, 오희경이 다시 한번 같은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은 피난 시절 이중섭이 머물렀던 범일동에 조성된 '범일동 이중섭거리'를 방문해 화가 이중섭, 인간 이중섭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입장료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청소년 전화 예매시 5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극단 607-3107, 3148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

7.17(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지휘 **정낙복**

소프라노 **이미성**

해금 **방병원**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가 7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정낙복이 객원지휘하고 해금연주자 방병원, 소프라노 이미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한다.

풍부한 경험과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단원들과 음악적으로 하나되는 독특한 음악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정낙복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벨기에 브뤼셀 리에쥬 왕립음악원,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음악원에서 수학했다. 루마니아 국립교향악단, 소피아 스테이트 심포니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심포니, 수원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정낙복은 그동안 낭만적이면서도 절제된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첫 번째 곡은 박범훈 곡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1994년 한·중·일 3개국의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 공연을 위해 작곡된 곡으로, 경기민요인 '뱃노래'를 테마로 돛을 달고 세계를 향해 출범하는 분위기를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금연주자 방병원의 부산초연으로 들려주는 임준희 곡 해금협주곡 '혼불5 시김'은 故 최명희 선생의 대하소설 '혼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혼불시리즈 5번째 작품으로, '혼불' 제5권 '아소 님아'에서 받은 미학적 이미지를 해금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협연을 맡은 방병원은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국악실내악단 '산, 바다, 해' 동인,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성악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소프라노 이미성이 '명성황후' OST '나 가거든'과 가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려준다. 협연자인 소프라노 이미성은 독일 슈튜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및 독일가곡과, 하이델베르크 교회음악대학 성악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 체코, 폴란드 등 유럽과 국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솔리스트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미성은 독일 Inge-Pittler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고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음악가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남조 시인의 시 '광야'에서 받은 감흥을 국악관현악곡으로 표현한 계성원 곡 '광야'에 이어 마지막 무대는 국악관현악 '꿈의 전설'을 들려준다. 임상규 곡 '꿈의 전설'은 해적의 침입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은 '그'가 복수를 위해 마을을 떠나고 꿈만 같았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전설은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부산초연으로 들려준다.

입장료 R석 1만원,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 607-3105, 3143

2015 제1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

7.30(목)-8.4(화)
영화의전당, 부산콘텐츠코리아랩,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발칙하게 생각하고, 당차게 말하며, 영상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하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화축제 '제1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I)'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콘텐츠코리아랩,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펼쳐진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지난해까지 9회를 맞는 동안 어린이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제로, 어린이들이 영상을 통해 소통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참여형 영상문화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만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가족 중심의 대중적 영화축제로 거듭난다.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주제는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 획일화된 교육,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20여개국 100여편의 작품이 초청, 상영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새로운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큰나래모음(장편 초청작)과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은나래 모음(단편초청작),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레디~액션!'과 영화의전당 내 텐트극장에서 상영되는 6세 미만 유아 대상 영화모음 '텐트극장-옹기종기', 여름밤 하늘 아래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 모음 '야외극장-달빛별빛', 다양한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장편 다큐멘터리 모음 '다큐멘터리 특별전' 등이 상영되면서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레디~액션!'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진행한 결과 대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해외작품을 포함해 총 120편(어린이 72편, 청소년 48편)이 출품된 가운데 본선진출작 30편이 선정되어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경쟁부문인 '레디~액션!' 수상자 12명(어린이, 청소년 각 6명)은 다음해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해외영화제 출품참여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 '달라도 좋아'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총 4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어린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공모전을

입장료 프리패스 ID카드 2만 5천원, 일반상영작 5천원
(부대행사 관람료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

Preview

통해 선정된 7점의 우수작품을 포함한 모든 출품작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의전당에서 전시된다.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상영되는 영화만큼이나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영상제작 프로그램인 '하루만에 영화만들기! -시네마 스포츠', 영화 속 인상적인 장면을 역할극, 가면극을 통해 표현놀이로 재현해보는 '필름앤펀', 실제 성우가 되어 목소리 연기를 하고, 그 영상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더빙체험 프로그램 '나도 성우다!',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선율과 애니메이션 영화가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음악회(7월 31일 영화의전당), 어린이뮤지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2015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식은 7월 30일, 폐막식은 8월 4일 오후 5시부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된다.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신설령 음악평론가

5월 29일부터 3일간 '제1회 부산야외오페라페스티벌'이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면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 오페라 페스티벌은 오페라의 대중화와 관객의 저변확대를 기대하며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공연한 〈아이다〉는 베르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토스카니니 재단에서 무대 디자인과 연출에 탁월한 기량을 보여 온 프랑코 제피렐리에게 의뢰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부산에서 오페라 야외공연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일 것이다. 야외 공연의 매력 중 하나는 사방이 트인 공간이라 클래식 공연 특유의 진지한 청취 태도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자유롭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여름 밤 시원한 바람

이라도 불어온다면 환상적일 텐데 이날은 갑자기 비가 오면서 추워진 날씨 탓에 불어오는 바람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아쉬웠다.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이 주변 소음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구급차 경적이 귀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공연에 집중하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아이다 역으로 러시아 출신의 마리아 굴레기나가 이틀 동안 출연했으나 필자가 본 공연은 부산 성악가로, 아이다 역의 소프라노 김유섬과 라다메스 역에 테너 김지호 출연의 토요일 공연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고대 이집트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무대장면은 1막부터 오페라에 집중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고, 부산 성악가들의 열창은 무대를 장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화려한 무대 의상과 이색적인 춤 또한 관객의 시선을 붙잡고 '재미있는' 오페라가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잘 알려졌듯이 오페라 〈아이다〉는 1869년 11월 수에즈 운하 개통 축하 기간 행사로 카이로 오페라 하우스를 개관하고 이 극장에서 상연할 오페라를 베르디에게 의뢰하면서 탄생된 작품이다. 그런데 카이로 오페라 극장이 1869년 개관했다는 사실은 2015년 부산에 아직도 오페라 극장이 없다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하물며 베니스 최초의 오페라 극장 시작은 1637년이다.

오페라 〈아이다〉는 그 당시 유럽 청중에게 보여주고 감동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 관계되는 사제들의 의식에서 여성을 이국적 사실의 중심으로 만드는 유럽적 관례를 따라 남성 사제의 일부를 여성 사제로 바꾼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를 거론하며 문화 속에 침투한 오리엔탈리즘을 지적하지만 오늘날 베르디의 〈아이다〉는 기념비적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야외오페라페스티벌'은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보인다. 야외 공연으로 인한 음향문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날 공연에서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앙상블의 밸런스가 깨지고, 오케스트라 음색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오페라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 전주곡이나 간주곡 연주를 통한 관현악곡의 매력을 맛보게 하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야외오페라페스티벌'은 이번이 제1회로 다음해에 제2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부산의 여름 음악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공연을 찾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을 안겨주기를 소망해 본다.

애프터 시네마 클럽 인 모퉁이 극장

김희진 영화감독

익명의 사람들이 한 극장에 모여 영화를 보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극장이라는 상점에서 영화라는 물건을 입장료라는 이름으로 구매하고 자신만의 기억과 추억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영화 관람 행위는 영화 관객을 단지 소비자의 위치로 한정시킨다. 하지만 모르는 그 누군가와 한 극장에서 2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동일한 감정 상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인연의 작용이나 운명의 장난이 그 시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동일하게 느낀 감정의 소용돌이가 영화관 밖의 삶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객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관객 서로의 관계는 특별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특별할 수도 있는 관계들의 가치를 느끼고 새기는 움직임이 있다. 바로 중앙동 모퉁이극장에서 진행하는 애프터 시네마 클럽이라는 관객 중심 영화 활동이다.

모퉁이극장은 2012년 문을 연 이래로 꾸준히 관객을 중심으로 한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사회자가 되고, 비평가가 되고, 진행자가 되는 등등 모퉁이극장에서는 관객이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이자 주체가 된다. 관객들이 비평가가 되어 만든 잡지를 두 권이나 발행했고, 매 상영회마다 관객이 쓴 글을 실은 소책자를 만들어낸다. 연말에는 관객들이 준비하고 꾸미는 연말파티를 개최하고, 일반시민들을 참여시켜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소개하고 보여주는 활동도 돕고 있다. 모퉁이에 낀 돌처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지만 눈에 띄는 순간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듯이, 이 극장의 활동은 영화에 있어 어딘가 객체인 듯 보이는 관객을 당당하게 주체로 드러나게 하여 모퉁이 돌 같은 존재로 만들어낸다. 그런 모퉁이극장이 2015년 애프터 시네마 클럽이라는 이름의 상영회를 통해 꾸준히 새로운 모퉁이 돌들을 만나고 있다.

애프터 시네마 클럽은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일과를 마치고(애프터), 영화를 본 다음(애프터), 영화의 뒷얘기들을(애프터)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상업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은 휑하니 극장을 나가 줄지어 복도를 통해 빠져나가는데 애프터 시네마 클럽은 먼저 만나서 영화를 관람하기 이전에 각자의 일상을 나누고(관객 환대/소개 시간), 영화를 본 이후에는 함께 관람한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관객 토크 프로그램)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5월 25일 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안면이 없거나 타인 앞에서 말하길 주저하는 관객들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믿고 그들 각자의 생각을 영화를 핑계 삼아 타인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모두들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애프터) 타인과 교감을 이루는 클럽을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이 기간 함께 나눈 6편의 영화는 '생선 쿠스쿠스'(2007, 아브델 케치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2013, 벤 스틸러), '플라이트'(2012, 로버트 저메키스), '리얼리티 : 꿈의 미로'(2012, 마테오 가로네), '언더 더 스킨'(2013, 조나단 클레이저),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2013, 사라 폴리)로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관객의 일상적 삶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전문 영화이론이나 비평 지식은 없지만 그들은 솔직하게 자신과 영화를 관계 지어 속마음을 드러냈고, 그 과정은 영화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게 했다.

애프터 시네마 클럽과 모퉁이극장,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관객들은 더 이상 영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영화가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자원이라면 우린 이 자원 속에서 삶에 필요한 양분을 뽑아가야 한다. 단지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우리의 일상을 반추하게 해주는 영화의 기능을 활용하는 이들이 진정한 영화의 관객이자 친구라 할 수 있다. 허투루 흔하게 스쳐지나가는 영화 관람 행위가 아니라 자그마한 점 하나라도 찍어 갈 수 있는 영화문화를 만드는 이들이 관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소프라노 조지원 독창회

일 시 | 7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조지원 010-7665-5214

현재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성악과 4학년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조지원 독창회.
제31회 고신전국음악콩쿠르 성악 고등부 2위, 제17회 마산음협전국콩쿠르 성악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지원은 2012년 동아대학교 신입생음악회, 제7회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협주곡의 밤, 제1, 2회 M.I.M.O 음악회, 2014년 여름 밤 우리들의 이야기 음악회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부 고전시대와 바로크로 이루어진 이태리가곡을 시작으로 2부 벨리니의 이태리가곡, 3부 슈베르트의 독일가곡, 4부 피아니스트의 피아노솔로, 5부 한국창작가곡, 6부 Reynaldo Hahn의 프랑스가곡, 7부 오페라 아리아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반주/신주옥
- 해설/안효영

제24회 부산무용제

일 시 | 7월 5일 일요일 오후 7:00, 6일 월요일 오후 7:30, 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무용협회 632-5116

부산 지역 춤꿈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용축제 부산무용제 2015년 무대.
7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5개팀이 경연을 펼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발레연구회의 김한나와 판댄스씨어터 대표로 있는 김수현, 제18회 부산무용제 대상(안무가상, 남자연기상), 제26회 KBS무용콩쿠르 일반부 현대무용 은상을 수상한 손영일무용단의 손영일, 현대무용단 자유의 안선희, 김옥련발레단 훈련장으로 있는 최연순이 창작작품을 선보인다.
무용제가 열리는 기간동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앞 마당에서는 오후 5시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산시민 대동춤 한마당'이 펼쳐진다.

|일정|

5일(일) 오후 7:00
개막축하공연
경연참가작 부산발레연구회 김한나 'If…'(발레)
경연참가작 판댄스씨어터 김수현 'Left Behind'(현대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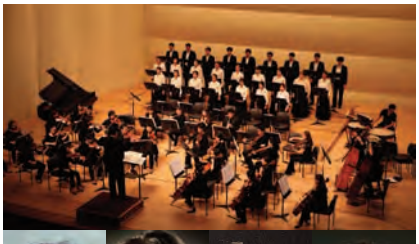
6일(월) 오후 7:30
경연참가작 손영일무용단 손영일 '기억의 향'(현대무용)
경연참가작 현대무용단 자유 안선희 '12피트'(현대무용)

7일(화) 오후 7:30
경연참가작 김옥련발레단 최연순 '해운(海雲)'(발레)
폐막축하공연 정신혜무용단 박미향 '굴절-N'(2014년도 대상팀, 한국무용)
부산시민 대동춤 한마당

2015 부산문화회관 힐링 아카데미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일 시 | 7월 6일(월), 13일(월)-14일(화), 20일(월)-21일(화) 오후 2:00 국제회의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관객은 미처 알지 못했던 무대 속 이야기를 통해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는 부산의 젊은 실력파 성악가들이 들려 주는 오페라 이야기로, 직접 무대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무대 뒤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7월에는 JEM CHOIR와 함께 하는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합창 '오페라 속의 하모니 합창음악(6일)'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테너 임성규의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13일)', 프리마돈나가 풀어내는 오페라 속 치명적인 여주인공 카르멘(오페라 카르멘), 토스카(오페라 토스카), 비올레타(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의 만남, 소프라노 김유진의 '3색의 디바-카르멘, 토스카, 비올레타(20일)'로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14일과 21일에는 지난 6월 15일과 22일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확산 예방조치로 연기되었던 소프라노 왕기헌, 베이스 김정대의 무대가 마련된다. 이날 무대에서 왕기헌은 비올레타의 '라 트라비아타'를, 베이스 김정대는 유쾌한 약장수 돌카마라의 '사랑의 묘약'을 무대에서 풀어낸다.



제26회 이건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초청공연

일 시 | 7월 8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은 이건음악회 블로그 www.eagonblog.com에서 신청)
문 의 | 이건산업 032-760-0496

'메세나'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90년, 체코 아카데미 목관5중주단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파 해외 뮤지션의 초청 무대를 열어온 이건음악회 2015년 무대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초청공연'.
지난 2001년 결성된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는 그동안 연주자들의 개성과 실내악과 교향악의 조화를 통해 오케스트라와 같은 큰 울림의 연주로 전 세계무대에서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드레아스 부샤츠, 바이올리니스트 로마노 토마시니, 비올리스트 울프강 탈리츠, 첼리스트 스테판 콘츠, 더블베이시스트 야누스 위드지크 등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현악 5중주단과 베를린 필 수석 트럼페터 가보 타르코비, 첼발로 솔리스트 크리스천 리거가 부산을 찾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번스타인 인 부산(Bernstein in Busan)

일 시 | 7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

카라얀과 함께 20세기 중후반을 양분한 위대한 지휘자이자 탁월한 감수성으로 대중친화적인 완성도 높은 작품을 남겼던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을 조명해보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번스타인 인 부산(Bernstein in Busan)'.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철저한 작품해석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슈에 팅저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과 디베르티멘토,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 번스타인이 즐겨 연주했던 거슈인의 '피아노협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리 신차오(수석지휘자)
- 협연/슈에 팅저(피아니스트)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일 시 | 7월 11일(토)-15일(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청소년 전화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07, 3148

•••

지난해 12월 부산시립극단 2014년 마지막 작품으로 선보였던 동명의 작품을 음악극으로 새롭게 제작한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한국 연극계의 산 증인인 김의경 선생의 동명 희곡을 재일교포 2세 연출가인 김수진이 새로운 시선과 구성으로 탄생시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은 독창적인 화법으로 한국 미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이중섭의 순수한 예술혼과 아내 마사코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슴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재탄생시켜 전작의 감동을 극대화했다.

- 예술감독/문석봉
- 작/김의경
- 연출 · 재구성/김수진
- 드라마트루기/김남석
- 작곡 · 음향감독/오오누키 타카시
- 음악감독/오리라
- 작곡/한혜신

배윤진 클래식기타 독주회

일 시 | 7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We Music 515-4242, 010-6416-5482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에서 클래식기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클래식기타리스트 배윤진 독주회.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원년멤버이자 현재 악장으로 활동중인 배윤진은 제15회 서울시장배 전국현악콩쿠르 일반부 1등상을 수상하고 그동안 슬로바키아의 대표적인 챔버오케스트라인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와의 협연무대를 비롯 금정수요음악회, 국제신문사 한낮의 유콘서트, KBS 'TV문화속으로', 순회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브라우어/연습곡
바흐/푸가와 알레그로, 프렐류드 BWV 998
빌라 로보스/5개의 프렐류드
줄리아니/로시니아나 제1번 작품 119 등

- 피아노/이은정

Program Guide >>

2015 Arts Festival 예솔제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8회 무용정기공연

일 시 | 7월 13일 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4-1229

•••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무용 정기공연 무대.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교육부장 성은지의 총 안무, 연출로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현대무용 '바다와 나비'(총안무 및 연출/성은지, 출연/서건혁, 오원준, 이유진, 이원택, 이지수, 조은정, 황아정, 황태영, 표중인 외)
발레 '라 바야데르' 중에서(재안무/이화성, 출연/노태균, 박현민, 안정호, 이서림, 김강민, 김민영, 김정훈, 김혜지, 박정선, 백서윤 외)
한국무용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우리는…'(안무/이은영, 출연/강혜라, 도현정, 문채영, 배수민, 송지아, 이소희 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

일 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 607-3105, 3143

•••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정낙복이 객원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해금연주자 방병원, 소프라노 이미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박범훈/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임준희/해금협주곡 '혼불5 시김'[부산초연]
백규진(편곡)/'명성황후' OST '나 가거든', 가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계성원/국악관현악 '광야'
임상규/국악관현악 '꿈의 전설'

제4회 KIBI 페스티벌 '만남'

일 시 | 7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씨엘뮤지컬컴퍼니 010-6205-1445

•••

영어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재능을 마음껏 무대에서 뽐낼 수 있도록 씨엘뮤지컬컴퍼니가 마련한 옴니버스 영어뮤지컬 제4회 KIBI 페스티벌.

'만남'이라는 주제로 4개의 어린이뮤지컬팀이 출연해 사람과의 만남, 사물과의 만남 등 다양한 만남이 있는 이야기로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첫 번째 이야기_하늘 꿈
두 번째 이야기_ SESA
세 번째 이야기_Hijkid's
네 번째 이야기_Joy

제18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9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은정 010-3936-7757

•••

부산중구 시니어코러스, 동남권 원자력병원 합창단, 신라 시니어스콰이어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은정이 이끄는 부산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973년 원불교 부산교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출발, 오랜 전통을 지닌 부산원음합창단은 그동안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본선 은메달 수상을 비롯해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종교음악 은메달 수상, 중국 샤먼합창올림픽 동메달 수상,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내한공연 특별출연 등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글로리콰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글로리콰이어 010-5513-0314

•••

1982년 6월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글로리콰이어 제22회 정기연주회.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된 지역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글로리콰이어는 2006년부터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부산 라이트 하우스 아동 돕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돕기 등에 기탁하면서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7080 가요와 디즈니 영화노래 모음, 추억의 팝송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합창곡과 재즈앙상블의 특별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 역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탁된다.

최영미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7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

열정과 감성, 그리고 지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최영미 리사이틀.
유년시절부터 동아음악콩쿠르, KBS 신인음악콩쿠르, 세계일보콩쿠르 1위, 부산음악콩쿠르 3위 등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한 최영미는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실기수석 졸업 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솔리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90 D.899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쇼팽/소나타 제2번 작품 35 내림나단조

제6회 웰니스병원 음악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첼리스트 김욱영 초청콘서트

일 시 | 7월 22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 3층)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

지난 2000년도부터 5년간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을 후원하며 꾸준히 클래식음악회를 열어온 웰니스병원이 새로운 후원자인 차세대 첼리스트 김욱영과 함께하는 제6회 웰니스병원 음악회.
지난 1999년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1기로 입학, 재학 중 금호영재 오디션, 이화경향콩쿠르 3위,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에 입상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김욱영은 미국 UCLA Herb Alpert School of Music에서 전액장학금으로 석사 졸업한 후 현재 UBC DMA(Doctor of Musical Arts)에 재학 중이다.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영민, 소프라노 박현정이 특별출연해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Pour le Piano

일 시 |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여주 010-5448-3927

•••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완전한 악기인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Pour le Piano'의 무대.
각자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다 매년 한차례 모여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는 'Pour le Piano'는 그동안 솔로, 듀오, 4hands 연주 등 피아노가 중심인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연주회를 가져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2 piano 4 hands 곡들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무곡 제1, 2, 5번
뿔랑/네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모차르트/소나타 K.545 'Sonata facile' 다장조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작품 17
쇼스타코비치/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가단조 작품 94

• 연주/이성희, 김여주, 장미라리, 한다혜

UKYO(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양보람 010-3863-3087

•••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010년 8월에 창단된 순수 민간 청소년 자선 단체 오케스트라인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이하 UKYO)의 제11회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지역에 재학중인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UKYO는 전문 지휘자와 각 파트별 강사들의 지도 아래 매년 2~3회 정기연주회와 다수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왔다.

판댄스씨어터 정기공연

Left behind(남겨진 자들)

일 시 | 7월 28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단체 15인 이상 예매시 7천원)
문 의 | 김수현 010-9056-1600

제24회 부산무용제 참가작으로, 판댄스씨어터 대표이자 춤 시엘 대표로 있는 김수현의 연출, 안무로 선보이는 'Left behind(남겨진 자들)'는 욕심과 자기과시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좇는 사람인 바로 'Left behind'를 통해 관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믿고 선택해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본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예술 · 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미학석사를 수료한 김수현은 그동안 세상사랑, Flying, 달빛꽃, 겨울 그리고 봄, KAIROS, 장밋빛 인생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 연출 · 안무/김수현
- 출연/허종원, 박은지, 허성준, 김태훈, 조윤서, 이정민, 강수지, 김수현

월드 프레스 포토 (World Press Photo) 2015

일 시 | 8월 1일(토)-30일(일) 중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원, 만13세~18세 8천원 초등학생 6천원
문 의 | 온지프렌즈 02-2038-2267

전 세계 포토 저널리즘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 프레스 포토(World Press Photo) 2015, 포토저널리즘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55년 네덜란드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된 World Press Photo 재단이 전 세계 사진기자 및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World Press Photo Contest를 실시해 그 수상작을 소개하는 '월드 프레스 포토 2015'展에서는 전 세계 132개, 사진작가 5,692명의 작품 97,912장 중 2014년 최고의 보도사진으로 선정된 덴마크 사진기자 Mads Nissen의 러시아의 동성애 커플 'Jon and Alex'를 비롯해 수상작가 4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입장마감 오후 7:00)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7월 4일 부산 버슴새 예술단 '四物놀이 한마당'

우리의 전통춤과 민속타악기의 절묘한 어울림을 무대공연으로 승화시킨 부산 버슴새 예술단의 무대.
|프로그램|
비나리(출연/최정민, 최의철, 김한동, 정성엽, 이복남, 성현우, 한석현)
삼도설장구(출연/정성엽, 성현우, 최정민, 김한동, 한석현, 김대원)
사물놀이(출연/정성엽, 박정원, 성현우, 한석현, 이복남, 김한동, 최정민)
즉흥무(출연/정은희, 조은미, 김호정, 현선화)
판굿놀이(출연/최정민, 김대원, 박정원, 정성엽, 김한동, 성현우, 최의철, 한석현, 이복남)

7월 11일 후 브라스 콰이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음악의 향연

지난 2011년 부산, 경남의 우수한 관악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후 브라스 콰이어의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1악장(B.Hollcombe 편곡)
피아졸라/리베르탱고
피아졸라/오블리비언
모차르트/혼협주곡 제3번 4악장
비틀즈/All you need is love
한국민요/강원도아리랑, 뱃노래 등

- 연주/트럼펫 김동현, 전상윤, 호른 김영민, 트럼본 최민재, 튜바 김기율, 퍼쿠션 양진일
- 노래/김아름

7월 18일 앙상블 에스뜨레지따 공연

2012년 3월 창단 이후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애니메이션음악, 크로스오버, 대중가요, 재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앙상블 에스뜨레지따의 무대.
스페인어로 '작은 별, 나의 작은별'이라는 뜻을 지닌 '에스뜨레지따(Estrellita)'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연주하듯 대중에게 친숙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프로그램|
별에게 소원을(When You Wish Upon A Star, 피노키오), 비비디 바비디 부(Bibbidi-Babbidi-Boo, 신데렐라), 그 사자는 오늘밤 잠을 잔다네(The Lion Sleeps Tonight, 라이온킹), 저 바다 밑(Under The Sea, 인어공주), 다 잊어(Let it go, 겨울왕국) 등

- 해설/임나리
- 출연/바이올린 임나리, 정희수, 비올라 윤솔샘, 첼로 정혜주, 클라리넷 유지훈

7월 25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데 13번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K.525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2악장
하이든/현악4중주 67번 '종달새'

- 지휘/김범수(수석지휘자)
- 연주/바이올린 조우태, 최예린, 이예서, 비올라 김초롱, 권덕진, 첼로 윤성민, 김한슬, 더블베이스 정준용, 클라리넷 김성준

Music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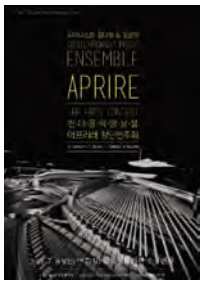
•••

1일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오페라 합창과 아리아

정통 벨칸토 발성으로 노래하는 뉴클래식 남성4인조 앙상블 Men's Harmony 단원인 테너 성민기, 최태근, 바리톤 박종준, 이현진과 소프라노 조윤정, 왕기헌, 베이스 양종근, 그리고 2012년 6월 부산지역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후원자들로 결성된 JEM합창단이 들려주는 오페라 합창과 아리아의 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아그이인가, 프로벤자 나의 고향으로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당신을 위해 축배를, 꽃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8일 현대음악앙상블 Aprire 창단연주회



경희대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석사), 노스텍사스 대학교(박사)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다정, 부산대학교와 미국 미시건대학교(석, 박사)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문경의 듀오무대로 마련되는 현대음악앙상블 Aprire의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L. 스켈톤/아메리칸 스케치
바버/수비니어 작품 28
거쉰/랩소디 인 블루 등

15일 박기나, 정아연 듀오 리사이틀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보스턴음대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박기나와 피아니스트 정아연의 듀오 무대.
박기나는 현재 미국 하프너 신포니에타 악장,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단원으로, 정아연은 신라대학교, 창원대학교, 배재대학교, 계원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소나타 제1번 라장조 작품 12
리스트/구노의 파우스트 중 '왈츠' S.407
이자이/바이올린소나타 제5번 사장조 작품 27
브람스/바이올린소나타 제3번 라단조 작품 10

22일 나진주 썸머 재즈 콘서트

재즈피아니스트 나진주, 기타리스트 이광현, 트럼페터 김일황, 드럼주자 박성진, 베이시스트 유경훈으로 구성된 나진주 재즈퀸텟이 마련하는 썸머 재즈 콘서트.

• 게스트/루나 수리(보컬)

29일 메소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감성콘서트

사랑, 행복, 이별, 그리움, 회상 등 감성적 코드로 대변되는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감성콘서트.
클래식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 곡의 작곡배경과 사연을 통해 소개한다.

• 총감독 및 지휘/손영채
• 협연/문수경(바이올린), 이민희(소프라노), 최요섭(테너), 김기환(바리톤), 김화수(테너), 한가비(포크송), 김수아(노래)

2015 목요상설공연 끌림

천원의 행복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1천원, 수요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선착순 100명 전화예매시 무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2일 달 '하루'
아침부터 새벽까지의 음악을 시간별로 나누어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맞추어 흐르는 감정적 변화를 연주곡으로 들려주는 퓨전그룹 달의 무대.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달의 자작곡과 동요, 가곡, 재즈 팝 등을 들려준다.

• 연주/가야금 권지현, 베이스 이지영, 보컬 · 리듬악기, 백정선, 기타 · 작곡 윤태현

9일 리에또트리오 '애니메이션 음악회'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찾고 누군가와 음악을 함께한다는 행복함을 공유하기 위해 결성된 리에또트리오의 무대.
이태리어로 '행복한'이라는 뜻을 지닌 'Lieto(리에또)'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 연주/피아노 김문주, 바이올린 김설화, 첼로 정고른

16일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2012년 새롭게 결성한 홍노경밴드 '해류뭄해리'와 함께하는 재즈무대.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해류뭄해리'는 이름처럼 시원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홍노경(보컬), 김지원(피아노), 최창근(테너색소폰), 유경훈(베이스기타), 김진훈(드럼)

23일 위드 앙상블 '춤을 듣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부산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들로 구성된 위드 앙상블의 무대.

• 출연/소프라노 김삼희, 한인숙, 바리톤 윤풍원, 피아니스트 박정난, 서주옥, 조은주

29일 수요문화가 있는 날
전문화된 클레식 연주회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결성된 '아트애비뉴 컴퍼니'의 무대.
피아니스트 김현경, 바리톤 양재원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이세기 하모니카 연주회

일 시 | 7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세기 010-6741-7237

•••

추억의 하모니카 선율에 반해 하모니카 사랑을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 하모니스트 이세기의 첫 번째 무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예술 대상(하모니카 부문)을 수상하고 현재 국제대학교 교수, (사)국제문화예술 하모니카 교육협회 회장으로 있는 하모니스트 한지희를 사사한 이세기는 이번 무대에서 스승인 한지희와 함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 즐거운 나의 집, 그 옛날에, 섬마을 선생님, 내 나이가 어때서, 태평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코리아 포크송 메들리, 동백 아가씨, 베싸메무초, 하이네켄 세레나데, 신아리랑, 부초같은 내 인생, 체리핑티 등

• 찬조출연/김영래(색소폰)

제1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일　시 | 7월 2일(목)–4일(토), 17일(금)–18일(토), 24일(금)–25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을숙도문화회관과 아지무스오페라단, 아미치 델 오페라단,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마련한 제1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코미디 형식의 연극적 요소와 이태리 벨칸토 선율을 통해 풀어나간 세이무어 바랍의 오페라 '버섯피자', 사랑과 음모가 뒤엉킨 레하르의 로맨틱 코믹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등 세작품을 선보인다.

|일정|

2일(목)–4일(토)
아지무스오페라단(단장/손욱) '돈 조반니'
17일(금)–18일(토)
아미치 델 오페라단(단장/김성진) '버섯피자'
24일(금)–25일(토)
T.I.F 심포니오케스트라(단장/김일택) '메리 위도우'

스페이스 움 목요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2일 스페이스 움
재즈밴드 러브레터의 '여름날의 love letter…'
보컬 최은아, 피아노 김상수, 베이스 박재훈, 드럼 곽영일, 색소폰 최창근으로 구성된 재즈밴드 러브레터의 무대.

9일 스페이스 움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폐교 스토리 & in 버스킹 콘서트
'폐교사랑모임'을 결성한 후 발품을 팔아 상상력과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국 곳곳의 폐교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낸 '폐교, 문화로 열리다'의 저자 부산일보 백현충 기자와 보컬 김다솜, 기타 김성광으로 구성된 '작은시옷들밴드'가 함께 하는 음악이 있는 북콘서트.

16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TIME EXPERIENCE with WINA
일본 재즈계의 떠오르는 별 기타리스트 유지로 와다와 베이스 기타리스트 야스시 코마쯔, 드럼주자 시게키 오쿠보, 그리고 재즈보컬 위나(김민정)가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

25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앙상블 클라쥼 피아노 듀오 콘서트

혼자만의 공간에서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을 벗삼아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솔로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함께' 작업하며 무한한 음악적, 문화적 영감을 공유하고자 결성된 피아니스트 최은영, 한상민의 '앙상블 클라쥼' 피아노 듀오무대.
독일어 Klavier(피아노)와 zusammen(함께)를 합친 '클라쥼(Klazum)'은 지난 3월 창단연주회에서 바르톡의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를 부산 초연한 바 있다.

Program Guide >>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신명무대' 7월 무대.

4일 **함께 나누는 우리 소리 이야기–성악**
잡가, 판소리, 가야금병창, 경 · 서도민요, 남도 · 제주민요, 동부민요

11일 **열린마당의 풍요–들놀음과 연희**
고성입춤, 문둥춤, 좌수영어방놀이, 동래학춤, 춤 · 판

18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민속악**
회심곡, 산조, 대풍류, 판소리와 고법, 시나위와 살풀이, 동해안무속사물

25일 **화려한 새로운 몸짓–창작춤**
삼고무, 탈빛, 청음무, 춤 · 수련, 부채춤, 운우고천

박영규와 함께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희망 나눔 콘서트

일　시 | 7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7만원(와인 및 리셉션 패키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

연기자 박영규와 함께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희망 나눔 콘서트.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음악회로,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신라대학교 교수와 피아니스트 최은영 인제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강민성, 남성 3인조 보컬그룹 헤븐 싱어즈와 연기자 박영규가 지휘자 김병수가 이끄는 부산메트로팝스오케스트라와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마스네/타이스명상곡 등 수곡

2015 IFSGF 국제 핑거스타일 페스티벌

일　시 | 7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다누림센터 다누림홀
입장료 | R석 5만 8천원, S석 4만 8천원
A석 3만 8천원
문　의 | 카파렐리 기타 070–4639–1589

•••

핑거스파일 기타의 세계적인 거장들이 벌이는 어쿠스틱 기타의 축제 2015 IFSGF(International Finger Style Guitar Festival) 국제 핑거스타일 페스티벌.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IFSGF 국제 핑거스타일 페스티벌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에서 열린데 이어 올해는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최지를 확대해 열린다.
핑거스타일은 곡의 멜로디와 리듬, 박자를 동시에 기타 하나로 연주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타 주법으로,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핑거 기타 천재소녀로 유명한 산드라 배, 마사 수미데, 저스틴 킹, 마사키 키시베씨, 트레이스 번디가 출연한다.

'바람 Wind & Wish' 첫번째 연주회

Oboe&Clarinet Duo Recital

일 시 | 7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프로젝트앙상블 바람 wind & wish
010-9656-4565, 010-9395-9683

•••

'바람'을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더 좋은 음악, 더 행복한 음악을 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이름 붙인 프로젝트 앙상블 '바람 Wind & Wish'의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으로 있는 오보이스트 박소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YMD윈드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이효주가 출연, 오보에와 클라리넷의 앙상블을 들려준다.

이예린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7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첼리스트 이예린의 독주회.
이예린은 동아음악콩쿠르 입상, 부산음악콩쿠르 2위, 세종음악콩쿠르 1위 및 전체 최우수상, 구리시 음악콩쿠르 1위 및 전체 우수상, 영산음악콩쿠르,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위, 부산교대콩쿠르, 부산 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1위, 부산음악협회 첼로 1위 및 전체 우수상, 유니버셜 음악콩쿠르 실내악 부문 2위 등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모음곡 제6번 BWV 1012
베토벤/소나타 제4번 작품 102 다장조
마르티누/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팽/소나타 작품 65 사단조

엘미소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당신, 그 영원한 이름

일 시 | 7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정희경 010-5519-2628

•••

장애라는 편견을 넘어서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엘미소 오케스트라(지휘/정희경)의 7번째 정기연주회.
수영로교회 사랑부에 소속된 장애우 학생들로 창단된 엘미소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 MBC 목요음악회, 부산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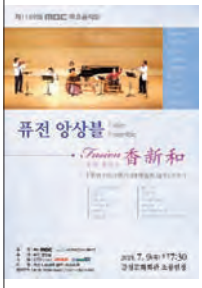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삼희, 오보이스트 류재환
- 연주/윤지섭, 윤주현,박우석, 이도현,이창범, 정아진, 정현규,최민식(바이올린), 박수완,이현지(비올라), 권재문, 박주호, 소희영, 윤정현, 이우형(첼로), 이상엽, 김정길(클라리넷), 심혜광, 이시헌(플루트), 최병익(트럼펫), 강영빈,박현수(타악기)

제1169회 MBC 목요음악회

퓨전앙상블 'Fusion 香新和'

일 시 | 7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퓨전앙상블 010-3994-4647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



클래식과 국악, 기악과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퓨전무대로 새로운 앙상블을 선보이는 퓨전앙상블의 무대.
'Fusion 香新和(퓨전 향신화)'라는 타이틀로 '퓨전악기들의 향기 위에 새로운 화성을 더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동의대학교 교수를 비롯 오보이스트 박종관, 테너 정태성, 피아니스트 서혜리, 가야금주자 이명일, 해금주자 최유리, 소리 강은미, 장구 이효빈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출연, 자연을 노래한 한국의 아름다운 가락과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 명곡이 어우러진 다양한 퓨전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프로그램|
시네마 파라다이스, 바람 · 강, 가브리엘의 오보에, 홀로아리랑, 쑥대머리, 활의 노래 등 수곡

그림전시와 함께하는 제7회 with FRIENDS 여름음악회

일 시 | 7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서승희 010-2285-3011

•••

부산예술중학교 재학생들이 그동안 쌓은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마련하는 with FRIENDS의 2015년 여름음악회.
그동안 유니세프 아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매회 따뜻한 사랑의 음악회로 관객과 만나온 with FRIENDS 음악회의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예술중학교 재학생들의 그림 전시회가 함께 펼쳐진다.

- 연주/이서윤, 박지연(이상 피아노), 황지원(바이올린), 천훈화(트럼펫), 박나윤(첼로), 이현송(마림바), 민주은, 임정윤, 유온화, 이주희, 김민아(이상 성악)
- 찬조출연/부산예중중창단, 부산예중 어머니합창단
- 그림찬조/정원정, 정혜빈, 선혜빈, 채서윤, 서영우, 유재현

국립부산국악원

어울마당 풍물세상

일 시 | 7월 11일(토), 18일(토), 25일(토), 8/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공원
입장료 | 무료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주말 야외에서 펼쳐지는 신명넘치는 풍물 한마당 '어울마당 풍물세상'.
2001년 전국민속경연대회 종합대상, 2005년 KBS국악대경연 풍물부문 장원, 2006년 부여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청배연희단'의 무대로 펼쳐지는 '어울마당 풍물세상'은 전통연희와 체험을 결합한 갈라형 콘서트로, 젊은 예인들의 재치있는 해설을 통해 다양한 리듬과 소리를 더한 '대취타와 비나리'를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무속장단의 새로운 만남, 전통 타악 퍼포먼스 '앉은반'의 실제 현장 굿판에서 쓰이는 무속악 리듬의 연주곡, 버나놀이와 자반뒤지기, 열두발 상모놀이 등 온갖 연희가 함께하는 판놀음의 '판굿' 등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클라 속으로' 창단연주회

일　시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클라 속으로 010-4846-6647

•••

클라리넷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결성된 '클라 속으로' 창단연주회.
지난 2013년 11월 창단된 '클라 속으로'는 나이, 실력에 상관없이 클라리넷을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동호회로, 매달 정기모임을 통해 실력향상과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프로그램|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플라시도 도밍고의 영원한 사랑, 동요 모음곡, 선라이즈 선셋, 예스터데이, 사랑의 스잔나, 브람스 왈츠 15번, 핀란디아 등 수곡

- 지휘/원준연
- 연주/정창영, 김용대, 서인수, 김성희, 이재경, 김정규

2015 투첼로스 내한공연 in 부산

일　시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다누림센터 다누림홀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문　의 | ㈜지니콘텐츠 02-568-8831

•••

첼리스트 스테판 하우저, 루카 술릭으로 구성된 천재 첼로 듀오 투첼로스 부산공연.
클래식에서 갈고 닦은 테크닉에 로큰롤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결합시켜 '클래시컬 로큰롤 크로스오버'라는 독창적인 음악장르를 만들어낸 투첼로스는 2011년 마이클 잭슨의 'Smooth Criminal' 커버영상으로 유투브 1백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 월드투어를 통해 투첼로스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5월 첫 내한공연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꽃미남 첼로 듀오'라는 애칭을 얻은 투첼로스는 이번 무대에서 마이클 잭슨의 'Smooth Criminal'를 비롯해 콜드플레이, 너바나, 리한나, 유투, 스팅 등 한국 관객이 좋아하는 유명한 팝 커버 곡들과 클래식 첼로 연주를 들려준다.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첼리스트 양욱진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산책'

일　시 |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2015년 색다른 만남 '콜라보레이션(협력, 협작)'을 주제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만나 색다른 무대를 선사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7월에는 부산사람보다 부산을 더 사랑하는 뉴욕 출신의 첼리스트 양욱진이 한국 무용가 장선희, 마임이스트 김세진, 배우 김상호, 이영아와 함께 클래식 명작과 그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있는 양욱진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첼로소나타부터 시대별로 우리에게 친숙한 첼로소나타를 유쾌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Program Guide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청소년음악회 'Dear. 베토벤'

일　시 |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0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 'Dear. 베토벤'.
미국 맨하탄음대 및 동대학원, 메릴랜드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음악의 악성' 베토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 43
베토벤/로망스 제2번 바장조 작품 50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제1악장
베토벤/교향곡 제8번 바장조 작품 93 제2악장
베토벤/교향곡 제1번 다장조 작품 21 제3악장 등

다원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일　시 | 7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신정현 010-3273-8184

•••

국악의 저변확대와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다원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국악실내악단 산 · 바다 · 해 대표인 송강수가 단장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수석 한영길이 지휘자로 있는 다원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소리와 다양하고 테크니컬한 연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과 재미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절영의전설, 비류, 사랑의 독백, 아리랑 환상곡, 신모듬, 난감하네, 쑥대머리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한여름 밤의 꿈

일　시 | 7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학생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7월 무대.
7월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프란츠 리스트 국립 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현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Francesco Vittadini 국립 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김경민,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리톤 시영민,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로마 국제아카데미, 노르마 시립음악원을 졸업한 베이스 양종근이 출연, 한곡가곡 및 독일가곡, 이태리 민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황유진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7회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7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

126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자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7월 무대에서는 현시대의 답답함을 인문학으로 속 시원히 풀어주는 노자 철학자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가 특별출연, 노자와 베토벤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바흐/관현악모음곡 제3번 작품 1068 제2악장 'G선상의 아리아'
하이든/현악4중주 제3번 작품 76 '황제' 제2악장 등

- 지휘, 해설/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3회 부산가곡사랑모임

독일교민 초청 특별연주회

일 시 |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봉규 010-4879-8511

•••

조국을 찾아온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민들이 함께하는 부산가곡사랑모임의 특별한 무대 '독일교민 초청 특별연주회'.

지난 2011년 우리가곡을 좋아하는 성악 애호가들로 결성된 부산가곡사랑모임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연주회를 통해 가곡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4월 11일 4주년 기념연주회를 가진 부산가곡사랑모임은 이번 연주회에서 부산가곡사랑모임 회원들과 독일 교민들, 아모르합창단이 출연, 우리가곡 및 독일 리트,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진행/박봉규(부산가곡사랑모임 대표)
- 반주/김영식, 하영화

국립부산국악원 'Beautiful Korea'

일 시 |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예약은 공연 일주일전부터 전화로만 가능, 전화예약 필수)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

국립부산국악원이 부산을 찾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신명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무대 'Beautiful Korea',

이번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중 '전폐희문, 영관'을 비롯해 봄날 아침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꾀꼬리의 자태를 무용화한 '춘앵전', 경쾌한 경기민요 반주에 화려한 춤사위를 볼 수 있는 '부채춤', 대표적인 한국민요 '아리랑', 연주자의 음악적 해석과 테크닉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산조', 밀양백중놀이와 부산농악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재구성한 새로운 연희작품 '꽃나부풍장놀이'를 선보인다.

2015 부산거문고악회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 마당 'Refined-여름풍류'

일 시 | 7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

국악기인 거문고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부산거문고악회가 마련한 '거문고 일곱 마당' 세 번째 무대.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금요일 열리는 '거문고 일곱 마당'은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 부산이 지닌 각 계절의 색깔을 반영한 창작 위촉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극장 연주를 통해 연주자의 호흡소리를 들으며 거문고의 생생한 원음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7월에는 부산거문고악회 단원인 김현경이 출연, 여창가곡 중 '우락',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가사 '매화가', 첫 봉화(박예섭 곡)를 들려준다.

- 음악감독/권은영
- 기획 · 홍보/김현경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앙상블 파시오네

일 시 | 7월 31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금(사전예약에 한함)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kr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으로 탄탄한 음악적 기량과 풍부한 앙상블 연주경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앙상블 파시오네의 무대.

피아니스트 서지수, 박혜진, 비올리스트 김지연, 첼리스트 김영지로 결성된 앙상블 파시오네는 2014년 서울 유중아트센터 기획 콘서트 연주자 공모에 당선되어 첫 연주회를 가진 후 2년 연속 청담동성당 금요콘서트 시리즈에 초청되었으며, 2015년 2월 예술의전당에서 창단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가진 바 있다.

Play 연극

힐링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1월 7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일반석 3만 5천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국내에서 가장 긴 3시간의 러닝타임으로 화제가 된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나요'는 감동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연극무대에 이어 2부 콘서트에서는 관객 모두가 참여하는 열정적인 스탠딩 콘서트가 펼쳐진다.

- 작, 작사, 작곡, 연출/김인
- 출연/최동혁, 이수민, 임보현 외

어린이 뮤지컬 야채친구 야미

일 시 | 1월 31일(토)–Open run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일요일 오전 11:00 (격주로 진행)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주)문화락 1600-1602

재미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즐거운 뮤지컬 공연 '야채친구 야미'.
햄버거, 소시지, 콜라,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부끄럼쟁이 당근과 사랑스러운 울보 양파, 울퉁불퉁 착한 감자, 멋쟁이 신사 버섯 등 야채친구들이 편식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작 · 연출/이욱현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 시 | 4월 2일(목)–7월 5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대별 커플의 사랑을 따뜻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2015년 무대.
세대를 아우르는 다섯 가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옴니버스 연극으로, 황혼을 맞이한 동네 오빠, 동생의 애잔한 사랑이야기에서부터 전라도 부부의 거칠지만 진한 사랑, 짝사랑하는 과 선배를 유혹하는 깜찍한 여자후배, 친구 피로연에 갔다가 둘이 남게된 오래된 두 친구의 이야기까지 종합선물세트같은 다양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예술감독/위성신
• 연출/신기섭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일 시 | 5월 21일(목)–7월 2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이다처럼 달콤하고 톡 쏘는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 장미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의 노총각 진성, 그 앞에 나타난 소원을 들어주는 여자 진희, 그가 원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으로든 변할 수 있는 마법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과연 진성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7가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는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음악과 풍성한 볼거리로 재미와 감동을 더해준다.

• 작 · 연출/이원준

Program Guide >>

연극 두 여자

일 시 | 6월 4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렛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극단 노는이 070-8151-6416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리네 가족, 어느 날 청주 정신병원 방화사건 환자이자 유력한 용의자였던 주명선이 불에 타 죽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 엄마를 찾아온 경찰로부터 엄마가 방화 용의자와 쌍둥이였던 사실을 알게 된다. 아빠와 수리가 회사로, 학교로 간 후 텅빈 집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엄마를 찾아오는데….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 여자'.

• 작 · 연출/서상우

연극 팝콘

일 시 | 6월 5일(금)–8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가난하지만 유쾌한 연극배우들의 다양한 일상을 그린 B급 코미디극 '팝콘'.
현실과 마주한 가난한 두 연극배우 칠성과 연제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연제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다. 결국 연제의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지금은 성공한 한류스타이자 연제의 첫사랑인 스파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가 찍고 있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연극 '팝콘'은 여느 청춘들처럼 막막한 현실세계와 마주한 연극배우들의 고군분투기를 웃음과 해학으로 유쾌하게 그려낸다.

• 작 · 연출/이성욱

연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 6월 5일(금)–1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축제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액츄얼리'.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이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러브액츄얼리는 지난 19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무대와 다양한 소품 외에도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노래가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연출/이성호

연극 검정 고무신

일 시 | 6월 6일(토)–7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에저또 852-9161

•••

1960~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부모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검정고무신'.
2007년 초연된 후 부산과 수도권지역을 눈물과 웃음바다로 만든 연극 '육남매'를 더욱 탄탄한 스토리와 감동으로 새롭게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관객들의 입소문만으로 매년 매진행렬을 이어왔으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부산 최초 오픈런공연을 성공시키면서 지금까지 2,000회 넘게 공연되고 있다.

- 작 · 연출/최재민
- 출연/김지연, 이지훈, 최재민, 변창열, 김소연

2015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일 시 | 6월 19일(금)–7월 26일(일) 공간소극장, 디코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

부산의 극단 어니언 킹을 비롯해 극단 놀자(대전), 극단 도모(춘천),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극단 한울림(대구), 극단 명태(전주),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구미),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안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극단들이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을 위해 마련한 '2015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극단 어니언 킹 '천국주점'

6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 토요일 오후 5:00, 7월 23일 목요일 오후 8:00 공간소극장

•••

지난해 5월 연출가 중차오(鍾喬)의 대만 差事劇團과 함께하는 해외교류공연으로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新천국주점'을 극단 어니언 킹 연출가 전상배가 새롭게 선보이는 연극 '천국주점'.
온 몸에 시체냄새를 풍겨서 도리어 자신의 냄새를 찾을 수 없는 한 명의 장의사와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져 무수한 장례식에서 굿을 하며 망령을 달래는 이가 망자를 만나면서 자살, 죽음, 다툼 등 살벌한 인간사회의 물질만능주의적 가면 뒤에는 어떤 가식이 숨겨져 있는지, 일상의 풍자 속에서 죽음의 유머를 선사한다.

- 작/중차오, 까유쭌야오
- 각색, 연출/전상배

극단 놀자 '그리움에 대하여'

7월 23일 목요일 오후 3:00 디코소극장

•••

몸과 마음이 지친 남자가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 첫사랑 미영이, 내연 관계의 여인, 그리고 아내. 그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남자는 그리웠던 날들과 다시 마주친다.

- 작 · 연출/나무

극단 도모 '작은 방'

7월 24일 금요일 오후 3:00 디코소극장

•••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로 인해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낸 희라, 희숙 자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18년만에 집을 찾게 된 두 자매는 그 시절 기억이 담긴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된다.

- 작/오혜정
- 각색/강동주
- 연출/용선중

극단 푸른연극마을 '꽃 피자 어데선가 바람불어와'

7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공간소극장

•••

고전 '춘향전'을 새롭게 각색한 '꽃 피자 어데선가 바람불어와'.
이몽룡과 춘향이 오리정에서 이별한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재회의 날을 약속했다. 요직에서 쫓겨난 변학도는 남원부사로 오게되고 향락에 파묻혀 지내면서 춘향의 수청을 요구한다.

- 작/백하룡
- 연출/이당금

극단 한울림 '변태(부제_꽃은 지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디코소극장

•••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 공간인 이상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갇힌 도시를 탈출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 도시의 지배자 Z만이 알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이 도시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는데….

- 연출/정철원

극단 명태 '귀향'

7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공간소극장

•••

1945년 8월 20일경 중국 간도의 어느 위안소, 위안부 생활을 했던 세 여인 봉기, 금주, 순이는 다음날 아침 자신들을 고향에 데려다줄 차를 기다리며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픈 마음만큼 귀향을 앞둔 그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8 · 15 광복 후 귀향을 앞둔 세 명의 일본군 위안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귀향'.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 '청록 靑鹿'

7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디코소극장

•••

문장지 폐간 소식을 들은 지훈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목월이 있는 경주로 내려가고, 두 사람은 시우(詩友)로서 우정을 쌓아간다. 그러던 중 조선어말살정책에 의해 검열과 폐간은 더욱 심해지고 지훈의 모습은 더욱 더 히스테릭해져 가는데….
조선어말살정책이 심해가던 일제 강점기 당시, 청록파의 두 시인 조지훈과 박목월을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과 우정을 그린 '청록 靑鹿'.

- 작 · 연출/김영승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분노의 포도'

7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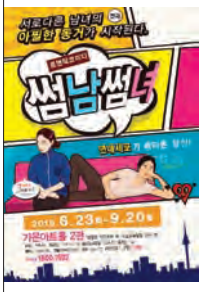
•••

미국작가 존 스타인벡의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연극 '분노의 포도'.
미국 경제 대공황시기, 오랜 가뭄과 대자본의 진출로 오클라호마 농장을 잃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조드 일가를 통해 당시 사회적 모순과 함께 온갖 고난과 맞서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 작 · 연출/김영승

로맨틱 코미디극 썸남썸녀

일 시 | 6월 23일(화)–9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SM기획 1600-1602



꿈을 가지고 서울로 향하는 첫날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정미, 우연히 모르는 남자 태일을 만나면서 결국 그들은 동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도시남자 태일과 시골여자 정미, 과연 이 둘은 잘 지낼 수 있을까….
달라서 더 흥미로운 두 남녀의 아슬아슬한 동거 이야기가 관객들의 잠들어있는 연애세포를 깨워줄 로맨틱 코미디극 '썸남썸녀'.

- 작 · 연출/천정민
- 출연/김동현, 장선아, 조충범

연극 극적인 하룻밤

일 시 | 6월 25일(목)–8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친했던 선배 형과 사랑했던 옛 애인의 결혼식에 씁쓸한 기분으로 참석한 정훈은 뷔페식당에서 만난 이상한 여자 시후와 실랑이를 벌이다 각자의 옛 애인이 서로 눈 맞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상가상 정말 죽고싶다며 시후는 정훈에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자고 보채는데, 시후는 그녀의 엉뚱한 매력에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해 하룻밤을 허락하는데….
옛 애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두 남녀의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에서 시작된 발칙한 사랑을 통해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와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가 서로의 빈 가슴을 채워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 '극적인 하룻밤'.

- 작/황윤정
- 연출/이재준

2015 한결아트홀 체홉전
체홉 단편선

일 시 | 6월 25일(목)–7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19세기말 러시아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안톤 체홉의 대표작으로 꾸미는 2015 한결아트홀 '체홉전' 마지막 무대.
기존 체홉 연극에 대한 무거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체홉이 의도했던 삶의 희비극성과 극적 리얼리즘을 부각시켜 친숙하고 유쾌한 체홉극을 선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재채기, 이발소에서, 드라마, 사람 데리고 장난치지 마요, 철없는 아내, 베로니카 등 엄선된 안톤 체홉의 대표적인 단편 6편을 중견 연출가 이윤택과 젊은 연출가 오세혁이 연출, 체홉 특유의 풍자와 해학의 미학을 선보인다.

- 작/안톤 체홉
- 연출/이윤택, 오세혁

Program Guide >>

연극 아일랜드

일 시 | 6월 25일(목)–7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7/5일 공연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아센 010-5162-0086

흑백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 남태평양 고도 로벤섬에 수감된 실제 죄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단 아센 '아일랜드'.
존과 윈스톤은 정치범 수용소인 로벤섬에 수감되어 있다. 존은 10년형, 윈스톤은 종신형을 받아 3년째 같은 방에서 수감중이다. 어느 날 연예회에서 공연할 연극 '안티고네'를 준비하던 중 존의 형량이 3개월로 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 원작/아돌후가드
- 각색, 연출/호민
- 출연/신현규, 박규남

연극 몽타주

일 시 | 7월 9일(목)–9월 13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는 연극 '몽타주'.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개성넘치는 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연극 '몽타주'는 지난 2008년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인 이해조의 '쌍옥적(1908년)' 탄생과 한국추리 문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한 전격 추리연극으로, 지금까지 1,500여 회 공연, 전국 25개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작 · 연출/김세환
- 출연/김빛나래, 안요찬, 정욱권, 김재민

코믹극
크레이지 투–올드미스 닥터 왕

일 시 | 7월 10일(금)–9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정신의학계의 엘리트 유학파 천재 왕진애 박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한 왕진애 박사는 무료로 진행되는 치료 프로젝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서 우리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중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자신까지 환자로 위장해 5명의 중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각종 중독증세로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강력한 캐릭터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올드미스 닥터 왕진애와의 요절복통 좌충우돌 사건들이 빠른 극전개와 탄탄한 스토리, 신나는 퍼포먼스로 펼쳐지는 코믹극 '크레이지 투–올드미스 닥터 왕'.

극단새벽 단막극 레퍼토리

4개의 삽화, 그리고 세월

일 시 | 7월 14일(화)-25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 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청소년(24세 이하) 2만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극단새벽 기획제작실 245-5919

파업 농성중인 가장을 둔 한 가족을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담은 '예견된 이별'과 취조실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을 그린 블랙코미디 '아닌 밤중에', 통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가슴앓이를 그린 '산부인과에서', 권력 앞에 무너지는 지식인의 변절을 그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등 4편의 단막극을 통해 오늘 이곳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의 옴니버스극으로 선보인다.

- 작/이성민, 서현철
-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전상미, 박정아, 정주리

제3회 MAMA 마임페스티벌

일 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3:00, 8:00, 20일 월요일 오후 8:00 나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중고생 1만원, 어린이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부산 유일의 마임이스트이자 마임극단 '극단 세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진이 지난 2013년부터 열어온 MAMA 마임페스티벌 2015년 무대.
마음맞는 마임이스트들의 마음축제를 표방하는 이번 MAMA 마임페스티벌에서는 크라운 마임으로 세계각국에서 초청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찬수 마임컴퍼니의 김찬수와 프랑스 국제 마르셀마르소 마임학교를 졸업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주제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극단 상상바람의 이태건, 섬세한 감정선과 움직임, 관객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국제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 동메달 수상자 극단 세진의 김세진, 190cm가 넘는 큰 키로 시원시원한 움직임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해외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는 판토마임팩토리의 이정훈 등 4명의 마임이스트가 관객과 함께 즐기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일정|

6월 19일(금)-20일(토)
김찬수 마임컴퍼니 '블랙크라운'
- 연출, 출연/김찬수

7월 17일(금) 오후 8:00, 18일(토) 오후 3:00
판토마임팩토리 '키다리붕붕쇼'
- 출연/이정훈

7월 18일(토) 오후 8:00, 19일(일) 오후 3:00
극단 상상마임 '같이 떠나는 여행'
- 연출/허혁
- 출연/이태건

7월 19일(일) 오후 8:00, 20일(월) 오후 8:00
극단 세진 '지니스토리+플러스'
- 출연/김세진(마임), 윤시내(무용), 금성빈(바이올린), 노은석(기타, 노래)

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 7월 17일(금)-9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7/16일까지 조기 예매시 30% 할인, 학생 50% 할인)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영호는 300억원이 든 야쿠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과 뒤바꿔 들고온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히고 잠시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라이어' 시리즈 중 가장 진한 웃음과 독특한 캐릭터가 눈에 띄는 '라이어 튀어!'는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다.

Dancing 무용

강주미 다섯 번째 홀춤 몸, 탈, 굿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강주미 010-6226-8906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 · 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바람무용단 대표, 한국창작춤모임 '짓' 단원으로 있는 강주미의 다섯 번째 홀춤 '몸, 탈, 굿'. 전주시립전통무용단 훈련장을 역임한 강주미는 그동안 4차례 홀춤판과 제7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안무, 경남무용제 우수상 수상작 선무용단의 '주름'을 연출한 바 있다.

- 연출/황해순
- 해설/양성영
- 특별출연/박종환(풍류전통예술원 대표),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출연/강주미, 전종출, 김규진, 최치훈, 풍류전통예술원, 우리소리 우리가락 청, 김현일(대금), 한지우(가야금), 윤승환(장고)

Movie 영화

알랭 레네 특별전

일 시 | 6월 25일(목)-7월 12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거장 알랭 레네와 만나는 특별한 자리 알랭 레네 특별전.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며 인물들의 의식을 탐색했던 장편 데뷔작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부터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작품활동을 이어갔던 알랭 레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상영작|

히로시마 내사랑(1959년), 지난해 마리앙바드에서(1961년), 뮤리엘(1963년), 전쟁은 끝났다(1966년), 사랑해 사랑해(1968년), 스타비스키(1974년), 내 미국삼촌(1980년), 멜로(1986년), 우리는 그 노래를 알고 있다(1997년), 잡초(2009년),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2012년) 등

Concerts 콘서트

뷰렛 앨범발매 기념콘서트 – 부산

일 시 | 7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라이브스타오즈
입장료 | 균일 4만원(예매시 3만 3천원)
문 의 | 프리덤콘서트 070-8271-5549

2015 박정현 콘서트 'I AM YOU ARE ME'–부산

일 시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12일 일요일 오후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15 신유와 함께 하는 新 트로트 한마당–부산

일 시 | 7월 18일 (토)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쓰리온씨브릴리언트 1800-2575

Event 행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일 시 | 6월 29일(월)–7월 26일(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입장료 | 무료(선착순 모집)
문 의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749-9500 www.comc.or.kr

•••

시청자와 일반시민의 미디어활용과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스 비평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뉴스 비평 라디오 팟캐스트를 제작해보는 여름방학특강 '대학생 뉴스비평 프로젝트'를 비롯해 요즘 많이 제작되고 있는 모큐멘터리 제작방식을 채택해 일반적인 영상제작의 전 과정을 체험하고, 완성된 작품을 온라인 상영해 보는 '스마트영상중급–스마트폰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내레이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호흡과 발음, 발성법, 내레이션 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내레이션특강–내 목소리에 색을 입히자', 영상제작의 뼈대가 되는 기획과 구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기획서와 구성안을 작성하는 '영상제작 기초–기획과 구성' 등 총 4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다원예술프로젝트 'ARt Trip In Busan'

일 시 | 7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8:00 부산진역사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 의 | 프로젝트 gr 018-681-3627

•••

다양한 예술의 장르들이 지역과 공간의 탐색이라는 요소와 만나 국제협업,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공동창작을 시도하는 다원예술프로젝트 'ARt Trip In Busan'.
공간적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음악과 빛으로 표현한 'Pilgrim of Curiosity. Busan'과 점–선–면의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기억을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재구성한 영상 'The Way' 등으로 꾸며진다.

- 기획/최동민
- 무대미술/김호진
- 국제협업/Oliver Searle(작곡가), Trent Kim(光 작가)
- 영상/마그릿(최병훈,주강민, 조문석)
- 음악/부산우드윈드소사이어티(플루트 김윤희, 오보에 박시연, 클라리넷 유지훈, 바순 변지훈, 호른 김영민)

Program Guide >>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7월 무대.

|프로그램|

1부/런던심포니, 게르기에프,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2012
리샤르 갈리아노, 플레이 바흐, 낸시 재즈 펄세이션스 2010
비제이 아이어, 실예 네가드, 닐스 란드그렌 등, 에코재즈 어워드 2010
2부/마리아 슈나이더, 윈터 모닝 워크, 2013
폴 맥카트니, 라이브 키세스, 2012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해설이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 10

보사노바와 탱고, 그리고 칼립소

일 시 | 7월 15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
입장료 | 무료(자료집 제공,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

월드뮤직 해설가이자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최정욱이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제3세계 민족들의 음악을 통해 클래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사의 생명력과 민초들의 삶의 노래를 함께 공유한다.

- 기획 및 진행/최정욱(월드뮤직 음악작가 및 해설가)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53회 시낭송회

일 시 | 7월 28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Display 전시

남도미술 200년 탄생과 열려진 지평

일 시 | 4월 3일(금)–7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광복 7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특별기획전으로, 미술의 예향으로 불려온 남도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그 삶을 미술을 통해 살펴본다.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우리 동네 우리 집

일 시 | 4월 10일(금)–8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05~7

세계로의 여행-독일현대미술

일 시 | 4월 30(목)-7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독일현대미술의 대표작가 94명이 참여하고 310여 점에 이르는 작품이 소개되는 대규모의 전시로,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독일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2014 신소장품전

일 시 | 5월 15일(금)-7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실,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오드리 햅번, 뷰티 비욘드 뷰티

일 시 | 5월 9일(토)-9월 6일(일)
영화의전당 특설전시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대학(원)생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학생 이하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2015년도 제2회 신수유물소개전

일 시 | 6월 2일(화)-8월 30일(일)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기증 · 수탁 유물이나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들을 소개하는 2015년도 제2회 신수유물소개전.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했던 근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명으로,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의 친형으로 알려진 백련 지운영(白蓮 池雲英, 1852~1935) 선생의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지운영필 관음보살도'를 비롯해 '지운영필 왕청황리도', '지운영필 동파선생입극도' 등 총 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박형렬展 Slow-Drawing

일 시 | 6월 5일(금) - 7월 22(수)
BMW Photo Space
문 의 | BMW Photo Space 744-3924

고은사진미술관이 후원하고 BMW 동성모터스에서 운영하는 사진전문갤러리인 BMW Photo Space가 한국의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靑사진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첫 번째 전시회. '靑사진'은 사진계의 신진작가 군(群)이라는 의미와 한국사진계의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명에 착취 당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박형렬 작가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범한 자연을 배경으로 작가 스스로 자연물에 물리적 행위를 가한 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촬영한 작품들을 통해 자연이 사회와 인간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존재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의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전 김복만

일 시 | 6월 6일(토)-8월 1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이성적인 사고와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사진적 구성과 표현을 자유자재로 펼쳐온 김복만 작가의 작품전.

The New Wave in Korean Photography 1988-1998
DAE SOO KIM

일 시 | 6월 6일(토)-8월 19일(수)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 3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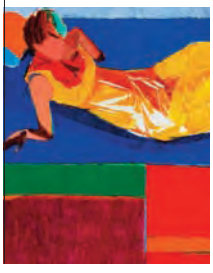
오재수展

일 시 | 6월 10일(수)-7월 26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문 의 | 용두산미술전시관 244-8228

여전히 전통 서화書畵를 고집하며 오직 동양화의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는 부산의 원로 작가 又菴 오재수 선생의 예술관이 담긴 사군자와 화조화 등 문인화와 더불어 관념 산수와 현실 풍경을 오가는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김두례 개인전
이미지텔링 Image-telling

일 시 | 6월 25일(목) - 7월 9일(목)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한국의 전통 오방색을 통해 한국적 영감을 시각화시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美를 완성시켜온 김두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적 모성의 아름다움을 보편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추상표현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모기홍 초대전 점으로 이룬 산

일 시 | 6월 11일(목)-7월 10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육단 스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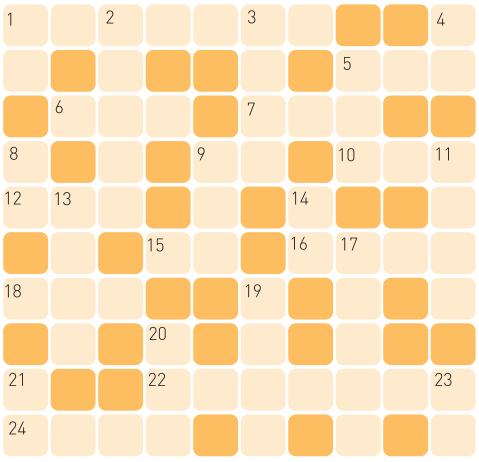
일 시 | 7월 1일(수)-7월 11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도호선, 이한중, 신무경, 박주현, 김태인, 전영진, 최규식, 김지은 등 부산의 중진작가의 조각전.

정창섭展

일 시 | 7월 10일(금)-8월 30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747-885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첫 휴가, 동남아시아
예다은 지음 / 북노마드

yelloin 옐로인 플라워

가로열쇠

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오케스트라 악기의 종류와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어린이 맞춤 프로그램.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⑤ 지리산의 주봉 가운데 하나인 반야봉에서 연곡사에 이르는 계곡으로, 이곳에서 오곡 가운데 하나인 피를 많이 재배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⑥ 올해로 작고한지 40주년이 되는, 한국 영화의 예술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감독. 한국 전쟁영화의 대표작인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리메이크작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만추', 유작 '삼포가는 길' 등을 남겼다.

⑦ '변신', '심판', '성' 등 20세기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그린 작품세계를 보여준 체코 태생의 독일 작가.

⑨ 조선 후기 청나라, 일본 등을 상대로 열었던 대외 교역 시장으로 압록강 하류에서 열리는 중강 ○○와 함경도의 회령 ○○, 경원 ○○, 동래의 왜관 ○○ 등이 열렸다.

⑩ 본명은 소식(蘇軾), 송시의 성격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시인에, 북송사대가로 손꼽히는 유명 서예가였고 중국 문인 화풍을 확립한 뛰어난 화가였다.

⑫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으나 주변에 더 큰 소행성이 발견되면서 2006년 행성에서 제외되어 왜소 행성(dwarf planet)으로 분류, 국제소행성센터(MPC)로부터 134340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다. 올해 7월 최초의 무인 소행성 탐사선인 뉴허라이즌스가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라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⑮ 손가락 끝 피부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융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양.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

⑯ 의식, 혹은 격식을 갖추는 행사에 요구되는 양식 등을 뜻하는 말이었나 최근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이 골을 넣은 후 벌이는 다양한 의미의 제스처를 일컫는다.

⑱ 여러가지 재료를 썰어 한데 섞어서 젓국으로 버무려 담는 김치.

㉒ 이슬람교의 발상지로 이슬람교 최대의 성지인 메카가 있으며,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수도는 리야드.

㉔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있다는 뜻으로, 통신망이나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세로열쇠

① '오케스트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바이올린 파트의 리더로 오케스트라의 전체 단원을 대표하는 연주자.

②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의 한자성어.

③ 1990년대 후반 프랑스의 뒷골목에서 음성적으로 퍼져 나간 변종 익스트림 스포츠로 고공점핑, 빌딩클라이밍, 로프타기 등 고난도의 스턴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임.

④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울란바트로. 13세기 초 칭기즈칸이 등장해 역사상 최대의 대제국을 건설했으나 제국 멸망 후 남은 내륙 중앙부가 중국 청(淸)에 복속되었다가 지난 1921년 독립했다.

⑤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했으며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주요 작품으로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등이 있다.

⑧ 베토벤 교향곡 제5번.

⑨ 전쟁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황제 또는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문으로,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이 유명하다.

⑪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기도 했던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의 작품은 놀라운 테크닉과 즉흥적인 연주가 특징으로, 그의 초절적(超絶的)인 기교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⑬ 백제시대 학자로,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학문과 인륜의 기초를 세웠으며, 일본가요를 창시하고 기술공예를 전수하여 일본인들이 큰 자랑으로 여기는 아스카(飛鳥)문화와 나라(奈良)문화의 원조가 되었다.

⑭ 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고대에 이어 근대에 선행(先行)하는 시기. 5세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서 15세기 중엽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이르는 시기를 가리킨다.

⑰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프랑스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지난 2012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국내 개봉 뮤지컬 영화 중 최고 흥행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⑲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1899년에 작곡한 교향시. 발표 당시 러시아의 압제하에 있었던 핀란드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핀란드 국가(國歌)로 사랑받기도 했다.

⑳ 고조선의 단군왕검이 도읍을 정하였다는 전설적인 지명으로, 평양이라는 설과 황해도 구월산이라는 설로 양분되어 있다.

㉑ 유적지, 명승지 등 조사할 대상이 있는 현장에 가서 살펴보는 일.

㉓ 1970~80년대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웨덴 출신의 팝그룹. 그의 음악에 착안되어 기획된 뮤지컬이 '맘마미아'이다.

지난호 정답

부	산	국	제	무	용	제	■	안	■
에	■	보	■	■	두	■	비	나	리
노	■	■	호	■	암	■	■	카	■
스	토	리	텔	링	■	오	페	레	타
아	■	■	리	■	■	케	■	니	■
이	■	■	어	벤	져	스	■	나	노
레	바	논	■	허	■	트	■	■	스
스	■	어	■	■	■	라	벨	■	텔
■	두	■	이	규	보	■	■	■	지
라	메	르	■	■	아	베	마	리	아

6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윤희(해운대구 우동2로), 박강진(수영구 광남로), 양봉규(해운대구 대천로), 최은주(부산진구 범전로), 황상규(동래구 충렬대로)

큰집 식사권: 김영민(해운대구 중동2로), 우향화(북구 화명신도시로), 이영일(중구 중구로), 정영미(영도구 태종로), 최복수(동래구 사직로)

문학동네 도서: 강성일(기장군 차성로), 김미자(서구 충무대로), 박성희(남구 황령대로), 이현주(금정구 남산로), 최경주(해운대구 반여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오민지(사상구 사상로), 이언종(동구 중앙대로), 조은하(영도구 절영로), 최시춘(금정구 부곡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김영범(남구 유엔평화로), 박소미(부산진구 월드컵대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조금씩 도둑

조명숙 지음 / 산지니 / 241p / 1만 3천 원

조명숙 소설가가 2012년 소설집 〈댄싱 맘〉을 낸 지 3년 만에 네 번째 소설집을 출간했다. '이치로와 한나절', '점심의 종류', '러닝 맨', '가가의 토요일', '거기 없는 당신', '사월', '나비의 저녁', '조금씩 도둑', '하하네이션' 등 9편의 중단편이 수록돼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매일, 매순간의 시간을 꾸준하게 메워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등장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 삶을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작가의 뚝심은 이 창작집 책갈피마다 엿보인다. '가가의 토요일'은 부산 지하철 수영역 입구에서 프렌치토스트를 만들어 파는 한 남자 가가의 토요일을 그린 소설이다.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가가는 '가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부산의 하루와 가가의 토요일을 담고 있다. '점심의 종류'는 세월호로 딸을 잃은 영애의 이야기이다. 영애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2024년을 힘들게 버티고 있다. 소설 어디에도 세월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픔은 짙게 배어있다. 담담해 보이지만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문장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김동욱 지음 / 김영사 / 360p / 1만 7천 원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 김동욱 교수가 동아시아 삼국의 건축을 섬세하게 비교하고 그 아름다움을 톺아보는 건축 미학 에세이를 펴냈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 건축을 동아시아의 범주 안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았다. 우리 건축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중국 건축과의 공통점과 차이를 찾아보고 우리와 비슷한 전개 과정을 밟아온 일본 건축과 비교해보면서 한국 건축의 핵심을 찾아본다. 한중일 건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붕과 난방시설이다. 유럽의 건물이 벽체의 외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동아시아는 부드러운 곡선의 처마에 집중했다. 곡선도 처마뿐 아니라 넓은 지붕면 자체가 완만한 곡면이다. 이런 공통점 아래 제각각 특징도 있다. 중국 예원정자는 꾸밈이 강하고 날아오를 듯 지붕이 휘어져 있다면, 일본 신사지붕은 다소 밋밋한 곡선이다. 반면 한국의 문묘대성전은 기둥을 일직선상에 나란히 세우지 않고 가운데 쪽을 안쪽으로 살짝 휘어지게 해 건물 전체가 곡선을 이루게 한다. 우리의 난방이 구들이라면, 중국은 캉, 일본은 고다츠이다. 세 나라의 닮은 듯 다른 건축의 아름다움을 흥미진진하게 살펴본다.

첫 휴가, 동남아시아

예다은 지음 / 북노마드 / 376p / 1만 5천 원

공들여 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십대, 늦은 밤과 주말까지 일에만 파묻혀 지내야 했던 첫 회사 생활을 모두 무너뜨리고 장기 여행을 떠난 작가 예다은의 두번째 여행 에세이. 이 책에는 작가가 동남아시아에서 보낸 두 달을 담았다. 한국 사람들에게 동남아시아란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짧은 휴가로 가는 곳, 배낭여행보다는 패키지 상품을 통해 쇼핑과 휴양을 즐기고 오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배낭여행자들 중에는 동남아시아를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 역시 배낭을 짊어지고 60여 일의 시간 동안 동남아시아를 걸었다.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떠난, 자신에게 선물로 안겨준 소중한 첫 휴가였다. 저자의 발길을 쫓아 말레이시아의 페낭, 태국의 방콕, 빠이, 라오스의 방비엥, 비엔티안 등 긴 동남아시아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혼자서도 동남아시아를 길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매력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서른을 앞둔 저자에게 또 다른 인생의 막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긴 동남아시아 여행,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건네고 싶은 작은 선물이다.

New Album. . . GM뮤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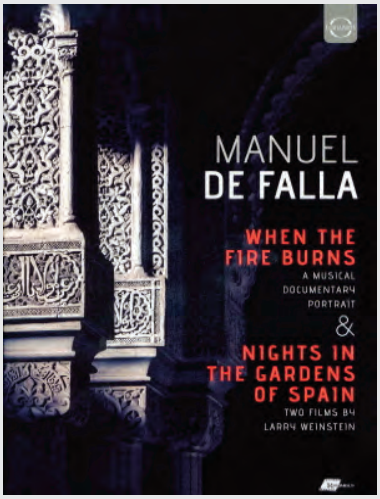
앙드레 레비의 J.S. 바흐 첼로 모음곡 전곡(2CD)

앙드레 레비(첼로)

▶ 프랑스의 거장 첼리스트 앙드레 레비(Andre Levy)의 초고가 LP 복각반

앙드레 레비가 1959년부터 1960년까지 프랑스 뤼망 레이블과 녹음한 음반으로, 바흐의 첼로 모음곡 전곡이 수록되어 있다. 1961년 당시 300~400세트 정도로 초반 LP가 발매되었지만 대부분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감상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으로, 현재 LP 복원에 사용될 만한 양호한 음질의 LP는 불과 몇 십장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P 컬렉터들에게 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음반으로 2015년 새롭게 리마스터링되었다. 클래식 LP 중 최고가(국제시세 U$15,000~25,000) 음반 중 하나로, 희귀음원 중에서도 초희귀음원이다.(국내 300장 배포 한정반)

- 사용음원 : 프랑스 Lumen LD 3 447-9(3LP 레드라벨 초반)
- 녹음일자 : 1959~1960년(MONO)



마누엘 파야 다큐멘터리 '불길이 타오를 때 &스페인 정원의 밤들'

알리시아 데 라로차(작곡), 몬트리올 심포니(지휘/샤를르 뒤트와) 외

▶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거봉 마누엘 파야의 음악세계를 담은 두 편의 영상

르네상스 말기에 화려하게 꽃폈던 스페인의 음악은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으며 유럽 음악계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스페인의 음악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세기 후반 민족주의 계열의 음악의 발흥을 통해서였다. 알베니스, 그라나도스와 더불어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황금기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마누엘 데 파야(1876-1946)이다. 스페인의 다채롭고도 풍요로운 음악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 속에서 끌어들였던 그는 양대 발레 '사랑은 마술사'와 '삼각모자', 오페라 '허무한 인생', 그리고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풍의 관현악곡인 '스페인 정원의 밤들'과 같은 빼어난 걸작들을 후대에 남겼다. 이번 영상물에는 그의 일생과 대표 걸작들의 뒷이야기 등을 담은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다양한 연주 영상, 그리고 80분 분량의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불길이 타오를 때'와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데 라로차와 샤를르 뒤트와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의 전곡 연주 영상 사이사이로 그라나다 일대의 자연 풍광과 이슬람 건축유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스페인 정원의 밤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발레 '해적'

알리나 코조카루(메도라)/ 바딤 문타기로프(콘라드) 외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 오케스트라(지휘/가빈 서덜랜드)

▶ 영국의 국민 발레리나 알리나 코조카루의 가장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물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The Corsair)'은 여러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였다. 그중 베르디의 오페라 'Il Corsaro'와 베를리오즈의 연주회용 서곡 'Le Corsaire', 그리고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기초한 발레 'Le Corsaire'가 유명하다. 발레 '해적'은 조셉 마질리에르의 안무로 1856년 파리에서 초연되었지만, 현재는 마우리스 프티파의 리바이벌 버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무대와 남성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춤사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작품은 근대 이후에도 여러 정상급 안무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덕션들이 만들어져왔다. 영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 출신 안무가인 안나-마리아 홀름스는 2013년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를 통해 자신의 프로덕션을 처음 공개하였는데, 이번 영상물은 이듬해 같은 단체에 의한 리바이벌을 담은 것이다. 로열 발레의 슈퍼스타로 군림하다가 2013년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로 이적했던 알리나 코조카루, 그와 반대로 이 공연 직후에 잉글리시 내셔널 발레에서 로열 발레의 프린시펄로 영입된 바딤 문타기로프가 호흡을 맞춘 보기 드문 기록이다.

NEWS

부산시립예술단 해외 초청공연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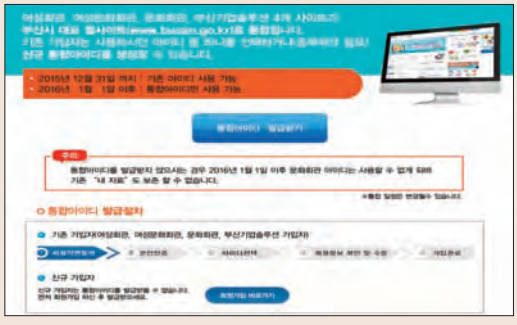
– 국악관현악단 일본 삿포로 '한국 천년의 소리'
– 소년소녀합창단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지난 5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일본 삿포로 공연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과수국제음악제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감동적인 무대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을 받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29일 뿌에르토 이과수 에스파시오 타쿠아푸 극장에서 열린 초청공연에서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새야새야 파랑새야, 아리랑, 추천가, 경복궁타령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와 화려한 부채춤 등으로 2,700여명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특히 5월 31일 700여명의 오케스트라와 200여명의 합창단이 함께하는 그랜드 피날레 콘서트에서는 이과수국제음악제의 특별요청으로 민요 '추천가'를 부채춤과 함께 단독 연주해 한국의 아름다운 미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르헨티나 중남미 한국문화원, 페루 리마청소년오케스트라 등 각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받는 등 해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 주최 전국 지자체 공연단 선정 공모에 당선돼 일본 공연길에 오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5월 20일 삿포로 시민홀에서 열리는 '한국 천년의 소리'에 참가, 한국의 멋과 흥이 넘치는 전통음악과 무용, 창작국악관현악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합아이디 변경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여성회관, 부산여성문화회관, 부산기업솔루션 등 4개 홈페이지가 부산시 대표 웹사이트(www.budan.go.kr)로 통합됩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시던 아이디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신규 통합아이디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의 통합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으시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산문화회관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기존 '내 자료' 또한 보관할 수 없으니 2015년 말까지 통합아이디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예술단

관객평가단 모집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관객평가단' 제도를 운영 합니다. 관객평가단은 관람객이 공연 선호도, 공연완성도, 예술성, 홍보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연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가단 혜택

공연 초대권, 예술에의 초대 우송,
예술단 및 문화회관 기획공연 할인혜택 제공(정기회원 혜택에 준함)

모집기간 7월 1일 ~ 7월 10일

모집인원 50명

심사 및 발표 7월 15일(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평가단 발대식 및 사전모임 7월 중

※발대식 후 9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단 활동 시작

접수 및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0

아르헨티나 공연을 다녀와서

이수빈 · 부일외고 2학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7기)

5월 23일 새벽 1시 30분 김해공항.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떠나기 위해 인천으로 출발했다. 이른 새벽 피곤한 몸이었지만 제일 고학년인 나는 피곤함도 느끼지 못하고 후배들을 지도하기 바빴다. 해외공연을 처음 가는 후배들은 나이가 어려 부모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졌는지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처음이 아닌 선배들은 부모님과 시원섭섭한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 같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디트로이트로 약 13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약 11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에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아르헨티나로 공연을 간다는 기대감에 비행시간은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이과수(이과수는 브라질 이과수와 아르헨티나 이과수가 있다)에 도착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버스로 이동했다.

아르헨티나 이과수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시골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을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숙소였던 투어빌론 호텔에서는 다양한 나라 친구들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등 교류의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매일 아침마다 연합연습을 하였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무용단이 함께하는 연습으로 여러 곡을 함께 맞추는 게 재미있었다. 전체진행은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나라여서 스페인어를 사용했는데 타 국가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스페인어를 모르는 우리합창단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느낌으로 이해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태프들 덕에 연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합창단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였다. 기분이 좋아지고 흥이 날 때는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도 하였고 악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합창단은 그런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외국 합창단과 같이 공연을 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 여러 합창단들도 그런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후에는 합창단만의 안무연습을 했다. 안무 연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즐기면서 한다는 점이였다. 소극적으로 따라하는 우리 합창단과는 달리 다른 합창단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즐기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연습이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합창단도 다른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옆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걸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맺기도 했다. 이러한 추억들이 쌓이면서 아마 나중에 여러 외국 친구들을 사귈 때 더욱 쉽고 더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5월 29일, 우리 합창단의 단독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리허설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보았다. 본 공연 무대는 역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답게 대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동영상을 찍었다. 우리가 퇴장할 때까지 많은 박수를 받으니 기분이 좋고 뿌듯하였다. 그 이후 행사장과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꼬레아"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머나먼 이곳에 한국을 알렸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다.

5월 30일은 연합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아르헨티나에 온 이후로 연습했던 결과물을 보여주는 날이었다. 축제 기간 내내 내리던 비는 잠시 멈춘 듯했지만 리허설을 하는 와중에도 비가 내려 급하게 우리가 단독공연을 하였던 실내공연장으로 변경되었다. 좁은 무대여서 아쉽긴 했지만 후배들과 다른 합창단 친구들은 무대를 즐겼다. 다음날 31일, 그동안 언제 비가 왔었는지 모르게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반겼고 쉐라톤호텔 야외 특설무대에서 다시 피날레 콘서트를 가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침부터 공연복인 한복을 입고 공연장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에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고 이과수폭포 앞에서는 공연도 가졌다. 피날레 콘서트에서는 축제 조직위의 특별 요청으로 '추천가'를 단독으로 연주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하는 모습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6월 1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를 둘러보았다. 빨려 들어갈 듯한 굉음을 내는 악마의 목구멍 앞에서 자연의 신비, 경이로움에 다시 한 번 놀라며 기념사진도 찍고 즉석 공연을 가졌다. 가는 곳마다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연을 한다는 점이 우리 합창단의 장점이자 강점인 것 같다.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 6월 2일 출발할 때와 같이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이 기다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처음 한국을 떠날 때 눈물을 흘렸던 단원들이 문화사절단으로 한국을 알렸다는 뿌듯함, 자부심으로 어느새 훌쩍 커 보였다.

합창단에서 해외공연을 다니면서 느꼈던점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우리가 해외공연을 하면서 다른 나라 합창단과 교류하며 친구가 된다는 것, 또 그들의 합창방식을 알아가며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해외 공연이 마지막인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후배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져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우리나라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발전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킴스볼링장 625-8704
통큰한우 612-8801
남새밭 612-9566
vin cent 623-0772
남구보훈회관
수빈추어탕 626-7111
서진악기 612-9145
문화악기 625-7275
김가네 국수 · 꼬치구이 626-5441
벤들룽피아노 441-7474
동막골 청국장 611-3589
미미복국 628-8009
문화복국 621-7040
문화손칼국수 611-5734
The Musical 868-3311
The Classic 868-3311
문화꽃집 622-9722
아름분식 628-4467
옐로 인 플라워 080-337-3370
1F 송림정 624-2270
지하 'Hyun Woodwork' 목공방 622-6985
3F 갤러리예가 624-0933
2F 필하모니 628-2592
1F 국도예술관 245-5441
모짜르트 622-1456
콘텐트 오르간 평강음악사 626-7900
문화쌈밥 626-2292
영빈관 628-8666
coppio 627-8182
부산문화회관
공원칼국수 611-391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MOZART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

vincent 핸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

송림정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MEGABOX 서면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

yelloin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옐로인 플라워 꽃 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3

CROWN HARBOR HOTEL BUSAN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

새날한의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굿윌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부산문화회관 & 굿윌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 330.6000 하단 | 209.6015 서면 | 606.6000

웰니스병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

엘리움 여성병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

(진료내용) 편안한 관절·척추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

안경나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

2015

부산문화회관 힐링아카데미

어린이 오페라교실 수강생 모집

'클래식은 내친구'에 이은 부산문화회관의 오페라 길라잡이 '어린이 오페라교실'
재미있는 오페라 역사 이야기, 애니메이션 오페라 감상, 오페라&뮤지컬 비교 체험,
분장교실 등으로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와의 만남

8월 3일(월)~7일(금) 오후 2:00~4: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모집요강

| 모집인원 | 40명(초등학교 2학년이상)

| 신청기간 | 2015. 7.20(월) ~ 28(화)

|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접수,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 교육강사 | 이연기(영산대학교 교수) 외

| 수 강 료 | 20,000원(정기회원 10% 할인)

| 세부일정 |

회차	일시	프로그램
1강	8월 3일(월)	- 오페라와 친구하기 - 오페라 기네스, 재미있는 오페라 역사(영상과 함께 간단한 강의)
2강	8월 4일(화)	- 오페라 애니메이션 감상 〈마술피리〉 - 목소리도 악기, 오페라 발성법과 호흡법
3강	8월 5일(수)	- 오페라 감상 〈헨젤과 그레텔〉 - 목소리도 악기, 오페라 발성법과 호흡법 -오페라 직접 불러보기
4강	8월 6일(목)	- 오페라 친구 뮤지컬 비교체험
5강	8월 7일(금)	- 오페라 직접 불러보기 - 분장 체험, 역할 배정 후 오페라 직접 불러보기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음악극

화가 이중섭

길떠나는 가족

작 : 김의경 / 연출 : 김수진 / 재구성 : 사사키 아이, 김수진 / 예술감독 : 문석봉
作 : 金義卿 / 演出 : 金守珍 / 再構成 : 佐々木 愛, 金守珍 / 藝術監督 : 文錫奉

2015. 7.11(토)~15(수)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공연시간 11일, 12일 17:00 / 13일, 14일 19:30 / 15일 17:00
균일 10,000원

15일(수) 마지막날 공연은 단체관람으로 인하여
티켓판매가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CAST /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엄지영, 채민수, 김민정, 이연진, 정으뜸, 고현우, 서희정, 박아영, 차승현, 박준서, 이재찬, 김성열, 김경원(아역), 김지원(아역)

STAFF / 드라마트루기 김남석 조명감독 이상봉 무대미술 오오츠카 사토시 大塚 聡 오브제 노무라 나오코野村直子
작곡 • 음향감독 오오누키 타카시 大貫 誉 작곡(뮤지컬) 한혜신 음악감독 • 조연출 오리라 안무 오오카와 타에코 大川妙子
제작 시마무라 히로야스 嶋村浩康 분장 이지원 사진 손재영 무대감독 정순지

※부산문화회관 할인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예매시)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소년 30% 할인(전화예매시)
중고생, 장애우(1~3급 동반 1인까지, 4~6급 본인만)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50% 할인(전화예매시)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협력 / 劇団文化座 문의 / 607-3107(홍보팀) 607-3148(공연운영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인터파크 AUCTION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번스타인 인 부산

BERNSTEIN IN BUSAN

2015. 7. 10 금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피아노 슈에 팅저
Xue Tingzhe

Program

번스타인 L. Bernstein	「캔디드」 서곡 Overture to "Candide"
거슈윈 G. Gershwin	피아노 협주곡 Piano Concerto
번스타인 L. Bernstein	디베르티멘토 Divertimento
번스타인 L. Bernstein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中 "심포닉 댄스" 'Symphonic Dances' from "West Side Story"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휘 **김철호**

가수 **박강성**

태평소 **진형준**

노래 **박성희**

소리 **정선희**

징 **송강수**, 장구 **최오성**, 꽹과리 **이주헌**, 제금 **박재현**

2015. 8. 12(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협연
박강성(대중가수)
진형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최오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이주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재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프로그램
국악관현악 [거울나라] / 작곡: 이경섭
태평소와 국악관현악 [Over The Rainbow, The Children of Sanchez] / 편곡: 이준호
창작성악곡 [천지여 천지여] / 작시: 금나영 / 작곡: 이병욱 / 편곡: 백규진
창작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 작곡: 이경섭
박강성과 함께 하는 대중가요 / 편곡: 백규진
경기도당굿 장단에 의한 타악협주곡 [불꽃] / 작곡: 이정호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 홍보팀 051-607-3105 운영팀 051-607-3143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 ~ 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엘로인플라워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몽타주'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2015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할인됩니다.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7월 공연일정

청정 海의 부산 2015 July 7

2 19:00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대극장 무료/부산MBC(760-1126)
19:30 소프라노 조지원 독창회
소극장 초대/조지원(010-7665-5214)

4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버스새예술단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5 19:00 제24회 부산무용제
대극장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8:00 2015년 글로벌공동체 다문화가족 음악회
중극장 부산사랑여성회(010-8266-6662)

6 19:30 제24회 부산무용제
대극장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4:00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 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JEM 콰이어'
국제회의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

7 19:30 제24회 부산무용제
대극장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8 20:00 제26회 이건음악회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초청공연'
대극장 초대/이건산업(032-760-0496)

10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번스타인 인 부산'
대극장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4~5)

11 17:00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16:00 토요상설무대-후 브라스콰이어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12 17:00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18:00 배윤진 클래식기타 독주회
소극장 초대/We Music(010-6416-5482)

13 19:00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8회 무용정기공연
대극장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19:30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14:00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 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테너 임성규'
국제회의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

14 19:30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14:00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 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소프라노 왕기현' 국제회의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팔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051)626-2592

엘로인플라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꽃 상품 10% 할인
(일부상품 제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051)627-1253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5. 21(목)-7. 26(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군일 3만원
장 소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몽타주'

7월 9일(목)-9월 13일(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일반 2만원 · 청소년 1만 5천원
장 소 : 공간소극장, 디큐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 611-8518
※ 시간 및 참가작 출페이지(cafe.daum.net/say012)참조

2015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6. 19(금)-7. 26(일)
입장권 : 일반 2만원 · 청소년 1만 5천원
장 소 : 공간소극장, 디큐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 611-8518
※ 시간 및 참가작 출페이지(cafe.daum.net/say012)참조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7월 공연일정

2015 July 7

15	19:30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음악극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중극장**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48)
16	13:00	**틴틴콘서트 중극장** ㈜KNN(850-9632)
17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0회 정기연주회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 **중극장**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3)
18	17:00	**제4회 KIBI 페스티벌 '만남'** **중극장** 무료/씨엘뮤지컬컴퍼니(010-6205-1445)
	16:00	**토요상설무대-앙상블 에스뜨레지따**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19	15:00	**제18회 부산울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이은정(010-3936-7757)
20	14:00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 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소프라노 김유진' 국제회의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
21	19:30	**글로리콰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균일 1만원/글로리콰이어(010-5513-0314)
	19:30	**최영미 피아노 리사이틀** **중극장**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14:00	**부산문화회관 2015 힐링 아카데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베이스 김정대'** **국제회의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
22	20:00	**제6회 웰리스병원 음악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첼리스트 김욱영 초청 콘서트' 중극장** 2만원 · 1만원/부산문화(1600-1803)
24	19:30	Pour le Piano **소극장** 초대/김여주(010-5448-3927)
25	17:00	**UKYO 제11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양보람(10-3863-3087)
	16:00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
28	20:00	**판댄스씨어터 정기공연 'Left behind(남겨진 자들)'** **대극장** 2만원 · 1만원/김수현(010-9056-1600)
29	19:30	**아시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노블리에 콘서트 2015** **대극장** 영앤잎섬(02-720-3933)

전시일정

- 제21회 부산서예대전 – 대 · 중전시실
  일 시 | 7월 11일(토)-7월 15일(수)
  *시상식 7월 15일 14:00-국제회의장
  문 의 | 윤종철(010-9753-0718)
- 제11회 부경 임원 · 이사 및 초대작가전 – 중전시실
  일 시 | 7월 21일(화)-7월 23일(목)
  문 의 | 조상래(010-8501-8181)
- 월드 프레스 포토(World Press Photo) 2015 – 중전시실
  일 시 | 8월 1일(토)-8월 30일(일)
  입장료 | 일반 1만원, 만13세~18세 8천원, 초등학생 6천원
  문 의 | 온지프렌즈 02-2038-2267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8월 테마여행 신청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독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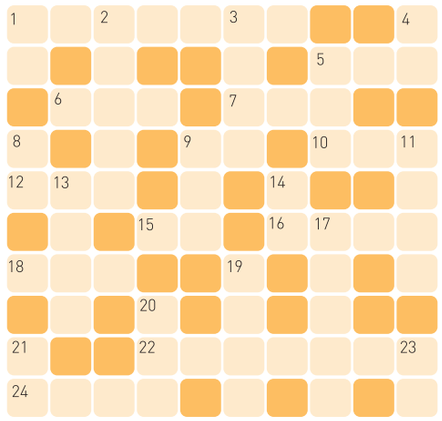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지휘·해설 | 금난새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5. 8. 21 (Fri) 11:00,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오보에 조정현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_학생 20%할인 문의 051-607-6066 *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고

PROGRAM 로시니 알제리의 이태리인 서곡 /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3악장 / 치마로자 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올림바단조_고별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